

2022년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주요 결과보고서

주요 결과보고서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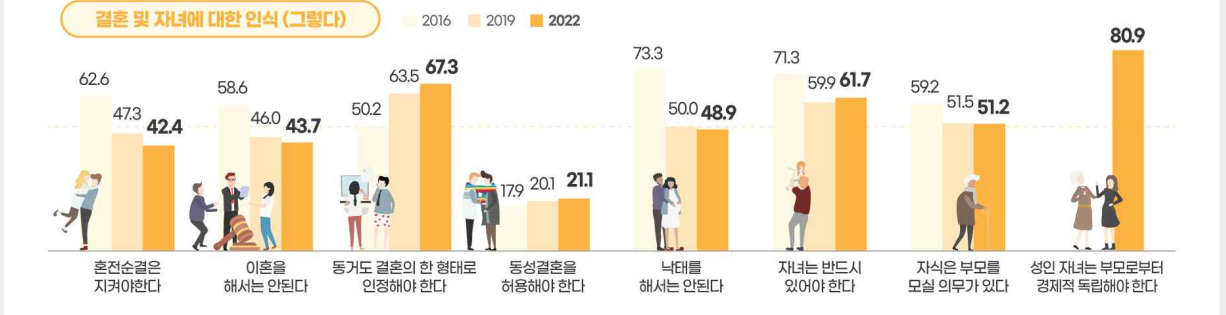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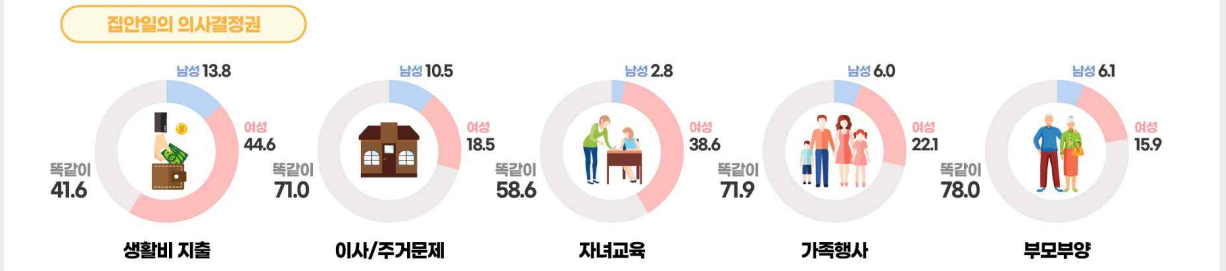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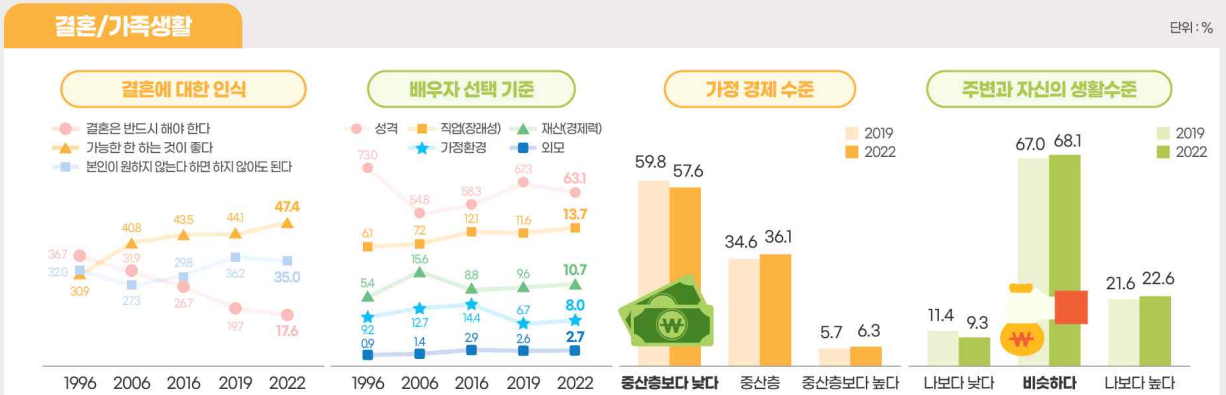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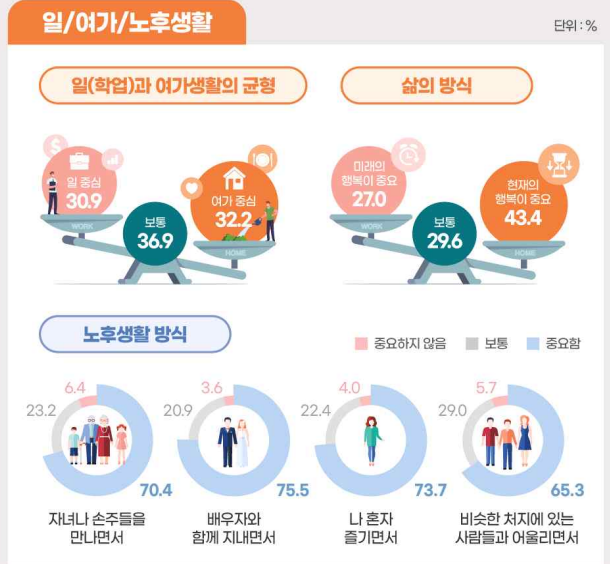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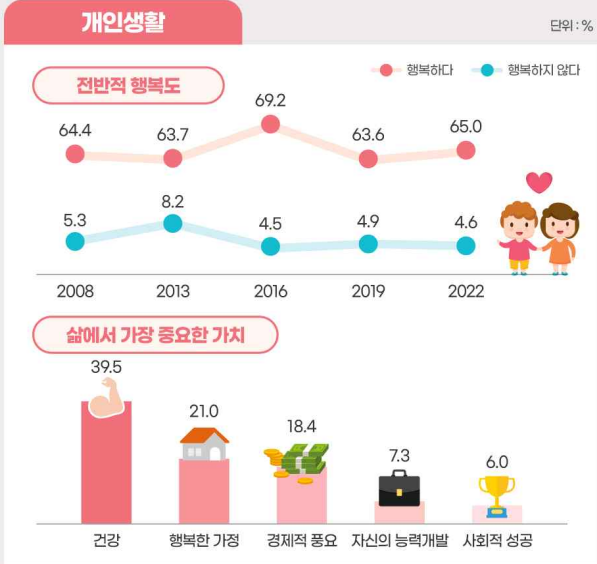


## 일 러 두 기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1996년도를 시작으로 2001년, 2006년, 2008년에 수행되었음. 이후 2013년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어, **올해 2022년 제8차 조사를 실시함**
- ‘이 자료는 △개인생활, △결혼/가족생활, △일/여가/노후 생활, △사회적 지지/가치관 일반, △갈등/신뢰/공정, △사회일반/참여, △문화/역사/정체성, △북한/통일 총 8개 분야에 대해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19세~79세의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 7. 13.~ 8. 24.(43일) 동안 조사된 결과를 정리한 것임
    - \* 실사 진행 전 목표 표본크기는 5,000명이었으나, 표본설계 및 현장 조사 과정을 통해 5,100명으로 마감되었음
- 조사 기준 시점의 경우 **2022년 현재**이며,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를 활용하여 **층화확률비례추출법\***으로 조사 지역 선정 후 **표본가구는 계통추출법\*\***, **응답자는 생월법\*\*\***을 적용하여 응답자까지 확률추출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함
    - \* (층화확률비례추출법) 조사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 중복되지 않도록 한 후, 각 층의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이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
    - \*\* (계통추출법) 조사모집단을 특정 조건으로 정렬 후,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는 방식
    - \*\*\* (생월법) 가구 내 응답자를 랜덤하게 표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조사 시 최근 생일 도래한 사람을 가구원 최종 적격 조사대상자로 선정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결과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 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관련 유사 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수록된 통계 수치는 **가중치가 부여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각 항목 값의 합이 총계(또는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korea.kr>)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sda.snu.ac.kr>)을 통해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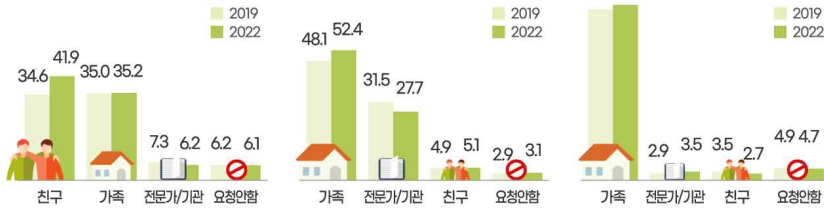
#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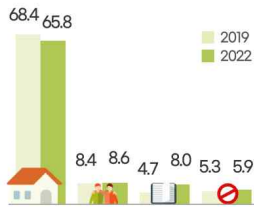
사회적지지/가치관 일반

단위: %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감정적·심리적 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상황

한국사회 주요 쟁점



생계/복지책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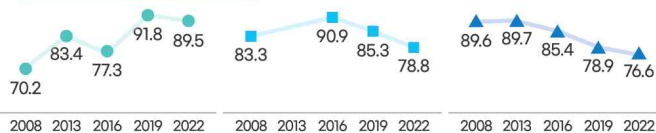
정년퇴직 시기



갈등/신뢰/공정

단위: %

집단 간 갈등(갈등이 크다)



기업가 vs 근로자



수도권 vs 지방



수도권 vs 지방



대기업 vs 중소기업



남성 vs 여성



기성세대 vs 젊은세대



한국인 vs 외국인



사회 집단에 대한 신뢰(신뢰한다)



사회의 공정한 대우(공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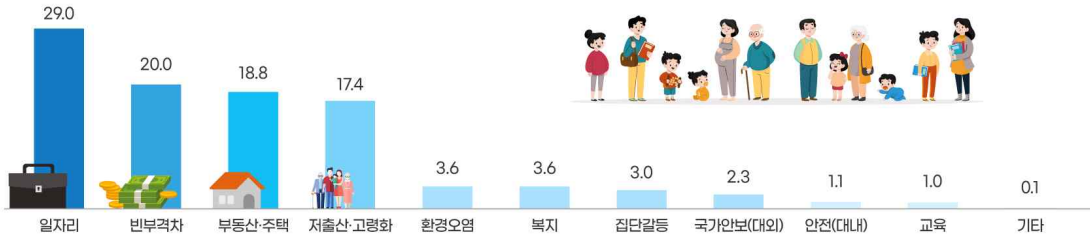
소수자 지원제도



사회참여/일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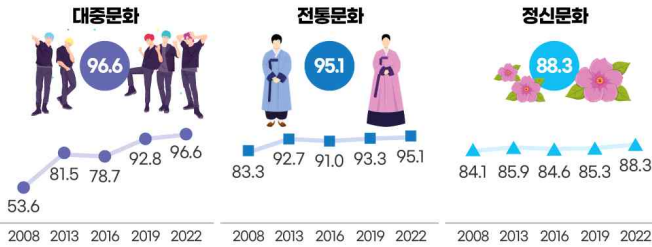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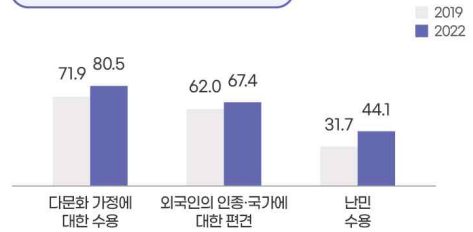
문화/역사/정체성

단위: %

한국문화 자부심(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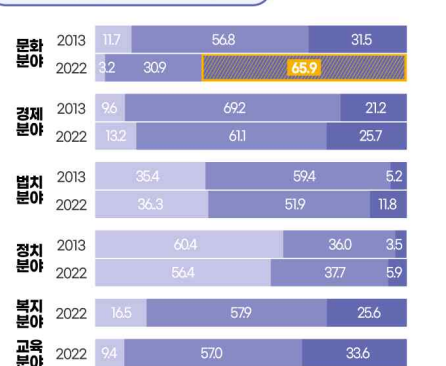
다문화와 외국인 인식(그렇다)



한국/한국인의 정체성(그렇다)



선진국(G7)대비 분야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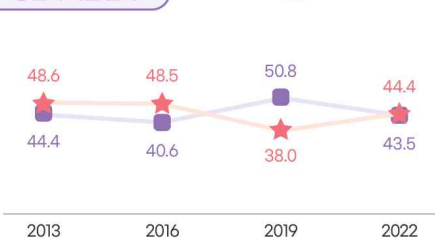
희망하는 우리나라



북한/통일

단위: %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 시기



# 목 차

제 1 장. 조사 개요 .....	1
제 2 장. 주요결과 요약 .....	2
1. 개인생활 .....	2
1) 전반적 행복도 .....	2
2) 삶의 전반적 만족도 .....	3
3) 가족에 대한 만족 .....	4
4) 친구에 대한 만족 .....	5
5)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	6
6)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	7
7) 건강에 대한 만족 .....	8
8) 직업에 대한 만족 .....	9
9) 주거에 대한 만족 .....	10
2. 결혼/가족생활 .....	11
1) 결혼에 대한 인식 .....	11
2) 배우자 선택 기준_1순위 .....	12
3) 혼전순결에 대한 인식 .....	13
4) 이혼에 대한 인식 .....	14
5) 동거(사실혼) 대한 인식 - 동거(사실혼) .....	15
6)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 .....	16
7) 낙태에 대한 인식 .....	17
8) 자녀에 대한 인식 .....	18
9)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 .....	19
10)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 .....	20
11) 가정 경제 수준 .....	21
12)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	22
3. 일/여가/노후생활 .....	23
1)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 .....	23
2)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	24
4. 사회적지지/가치관 일반 .....	25
1)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	25
2) 생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	26

# 목 차

3) 경쟁에 대한 인식 .....	27
4)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	28
5)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	29
6)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	30
7)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	31
5. 갈등/신뢰/공정 .....	32
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	32
2)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업가와 근로자 .....	33
3)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부유층과 서민층 .....	34
4)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과 지방 .....	35
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 .....	36
6)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진보와 보수 .....	37
7)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	38
8)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	39
9)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인과 외국인 .....	40
10) 경제적 양극화 인식 .....	41
1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	42
12)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두뇌(능력) .....	43
13)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일과 관련된 기술 .....	44
14)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노력 .....	45
15)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경력 .....	46
6. 사회일반/참여 .....	47
1)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_1순위 .....	47
7. 문화/역사/정체성 .....	48
1)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 .....	48
2)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정신문화 .....	49
3)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대중문화 .....	50
4)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다문화 가정 .....	51
5)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	52
6)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	53
7)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	54

# 목 차

8)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	55
9)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문화분야 .....	56
10)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경제분야 .....	57
11)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법치분야 .....	58
12)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정치분야 .....	59
13)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복지분야 .....	60
14)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교육분야 .....	61
15)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	62
8. 북한/통일 .....	63
1) 북한에 대한 인식 .....	63
2) 통일 시기 .....	64



## 제 1 장. 조사 개요

-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가치관을 토대로 의견을 소통하고 그 결과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떠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2022년도에 제8회차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가 실시됨

&lt;표 2-1&gt; 조사 설계

구 분	세부 조사 설계
조사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19세 ~ 79세의 성인남녀
표본크기	총 5,100명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4\%p$
표본추출	<p>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전체 집계구에서 층화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집계구를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층화변수 : 시도(단, 모집단 분석시에는 성, 연령까지 고려)</li> <li>- 추가 층화변수 : 동/읍면부, 주택유형(아파트/일반가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추출된 집계구에서 표본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p> <p style="text-align: center;">▼</p> <p>선정된 가구에서 생월법을 활용하여 적격자 1인을 무작위추출</p>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TAPI 활용)
현장조사기간	2021년 7월 13일 ~ 8월 24일
조사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제 2 장. 주요결과 요약

### 1. 개인생활

#### 1) 전반적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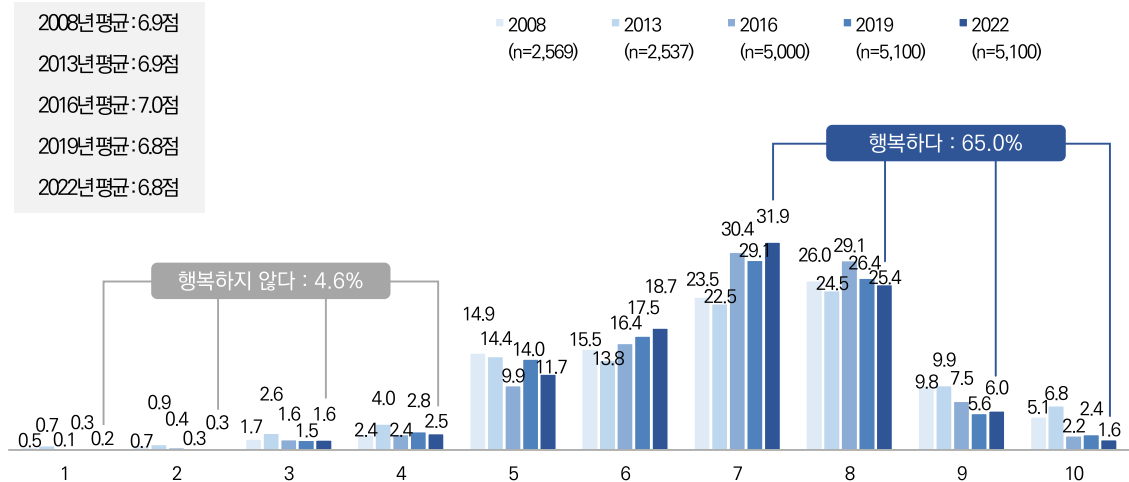
2022년도 한국인의 65.0%는 '전반적으로 행복'

-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10점일수록 행복하다는 의미)로 물어본 결과, 행복도는 '중상' 수준으로 나타남(평균 6.8점). 7~10점에 응답한 경우를 '행복하다'로 묶으면, 2022년도의 경우 65.0%가 '행복하다'고 응답함
- 2008년부터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 행복도는 꾸준히 '중상' 수준으로 나타남 (범위: 6.8점~7.0점)

〈그림 2-4〉 전반적 행복도

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2) 삶의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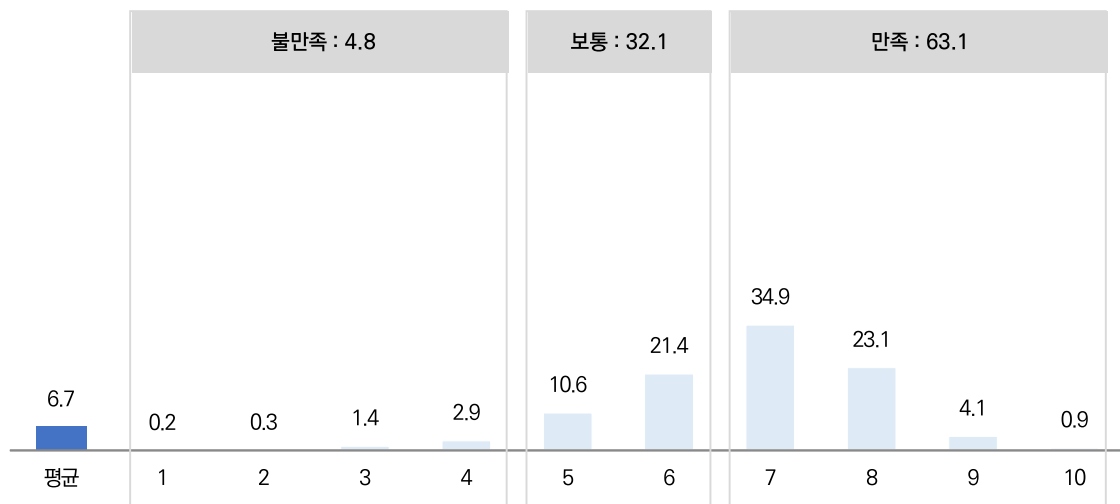
## 2022년도 한국인의 63.1%는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

-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를 10점 척도(10점일수록 만족함)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6.7점으로 나타남. 7~10점에 응답한 경우를 '만족한다'로 묶으면, 63.1%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항목별로 살펴보면, '불만족(1점~4점)'의 응답 비율은 4.8%에 그쳤으며, '보통(5점~6점)'은 32.1%, '만족(7점~10점)'은 63.1%로 나타남

〈그림 2-5〉 삶의 전반적 만족도

문)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단위 : %)



### 3) 가족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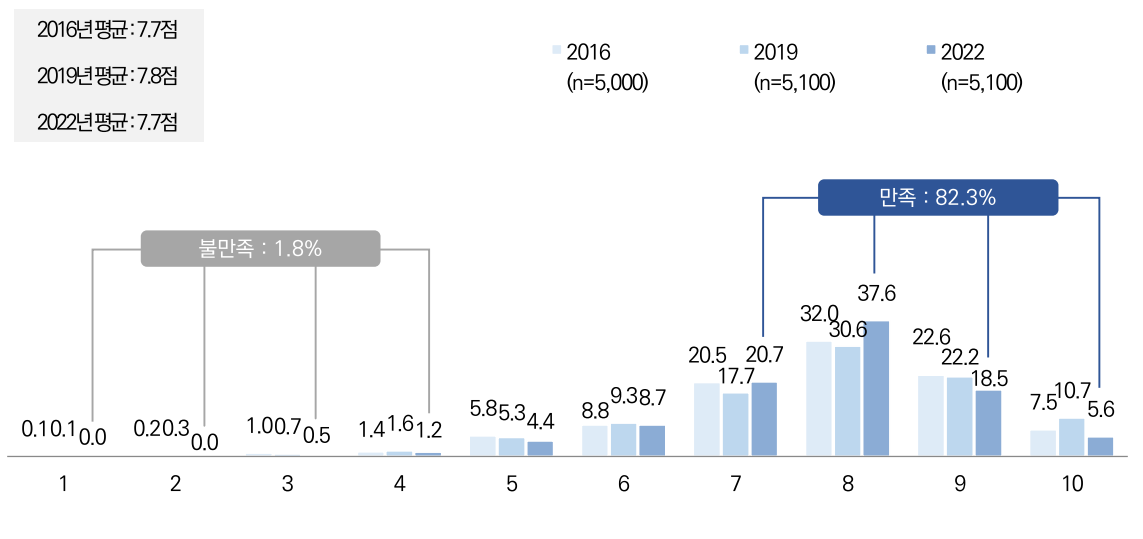
가족에 대해 82.3%가 만족, 10점 만점에 7.7점

- '가족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10점일수록 만족함)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중상' 수준으로 나타남. 7~10점에 응답한 경우를 '만족한다'로 묶으면, 82.3%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이는 보기로 제시된 7가지 항목(가족, 친구, 소득/재산, 문화/여가생활, 건강, 직업, 주거)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임
- 과거 조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점수는 큰 차이 없이 유지됨

〈그림 2-6〉 가족에 대한 만족

문)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가족

(단위 : %)



## 4) 친구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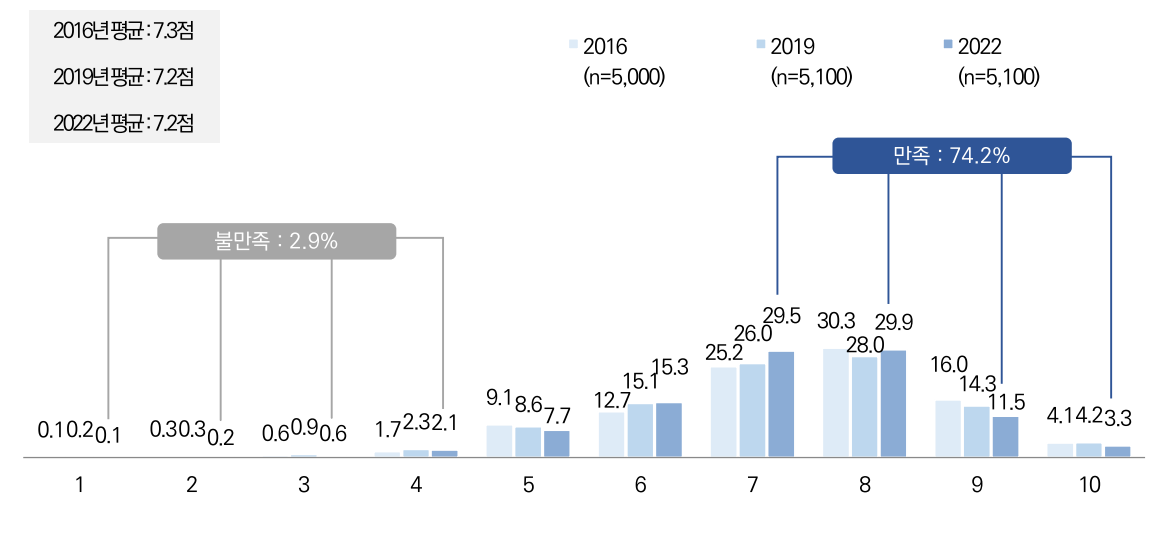
친구에 대해 74.2%가 만족, 10점 만점에 7.2점

- '친구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10점일수록 만족함)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7.2점으로 '중상' 수준으로 나타남. 7~10점에 응답한 경우를 '만족한다'로 묶으면, 74.2%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이는 보기로 제시된 7가지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 수준임
- 과거 조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6점과 7점 항목의 응답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5점과 9점 항목의 응답 비율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그림 2-7〉 친구에 대한 만족

문)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친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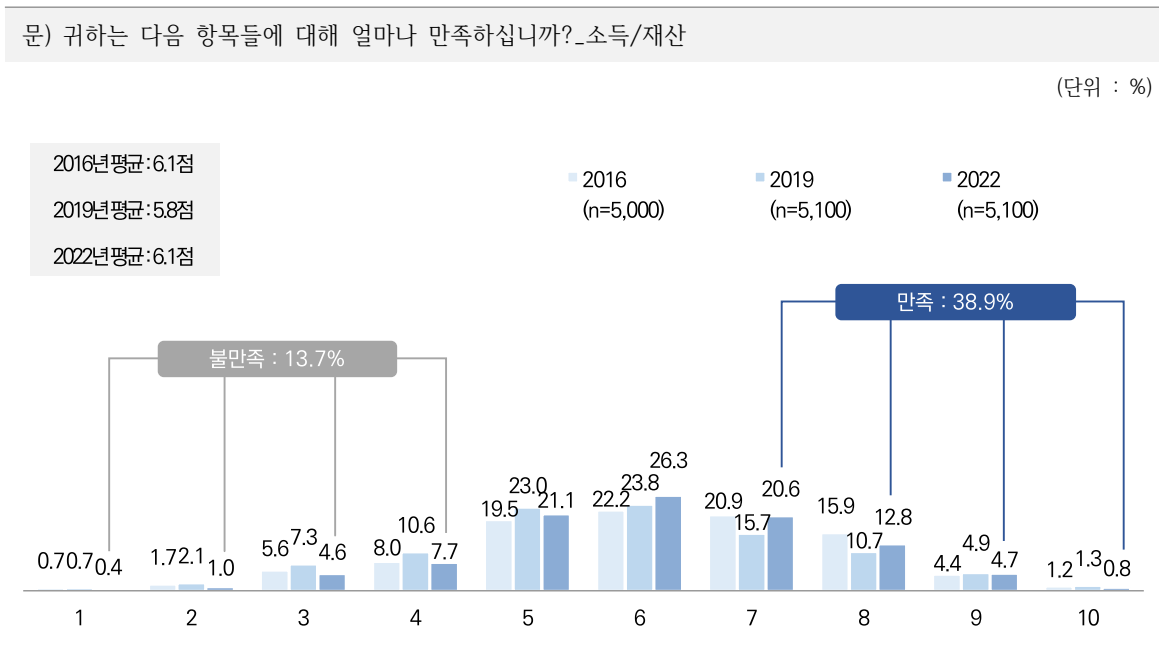


### 5)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 10점 만점에 6.1점

-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10점일수록 만족함)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6.1점으로 나타남. 7~10점에 응답한 경우를 '만족한다'로 묶으면, 38.9%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이는 보기로 제시된 7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 수준임
- 과거 조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점수는 2019년 대비 0.3점 증가하여 2016년 수준과 동일해짐

〈그림 2-8〉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 6)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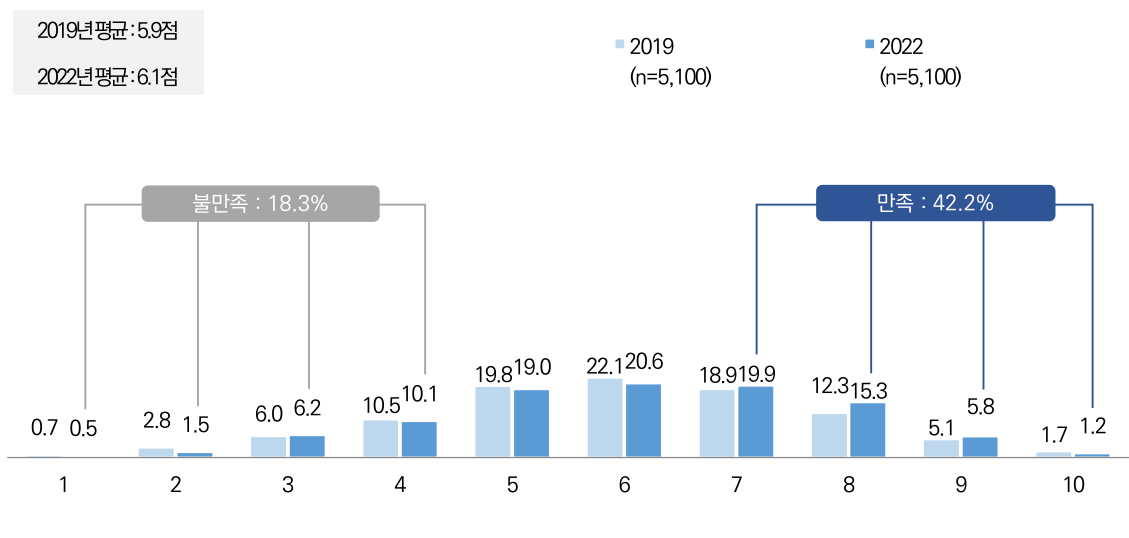
문화/여가생활에 대해서는 42.2%가 만족, 10점 만점에 6.1점

-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10점일수록 만족함)로 살펴본 결과, '소득/재산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평균점수는 6.1점임. 7~10점에 응답한 경우를 '만족한다'로 묶으면, 42.2%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이는 보기로 제시된 7가지 항목 중 두 번째로 낮은 만족도 수준임
- 과거 조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점수는 2019년 대비 0.2점 증가했고, 8점을 선택한 비율이 눈에 띄어 (3.0%p 증가)

〈그림 2-9〉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문)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문화/여가생활

(단위 : %)



## 7) 건강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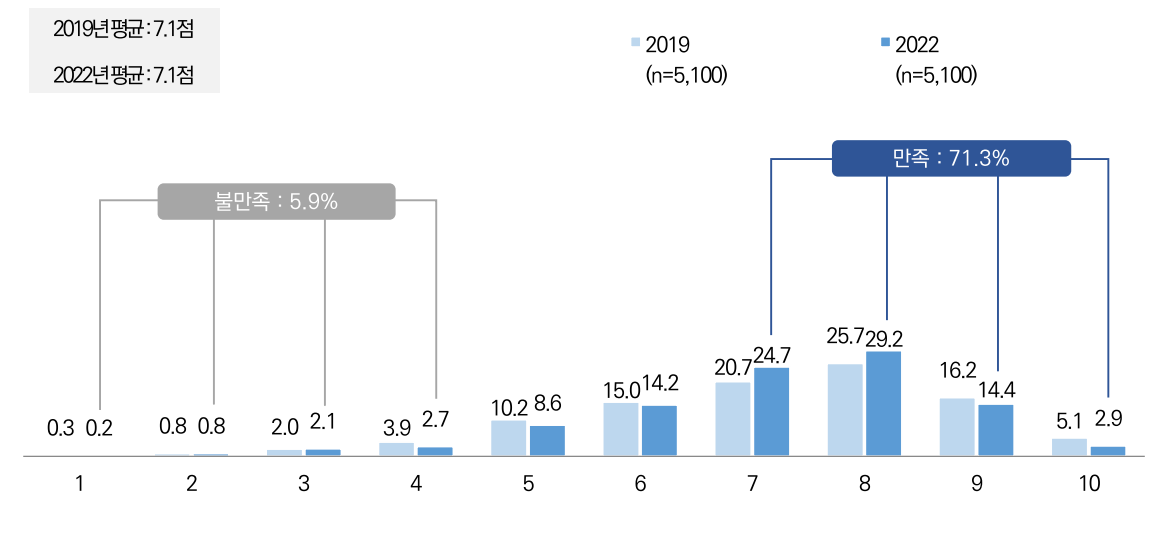
건강에 대해서는 71.3%가 만족, 10점 만점에 7.1점

- '건강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10점일수록 만족함)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7.1점으로 나타남. 7~10점에 응답한 경우를 '만족한다'로 묶으면, 7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201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점수는 동일하지만, 7점~8점 항목에서 더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남(각 4.0%p, 3.5%p 증가)

〈그림 2-10〉 건강에 대한 만족

문)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건강

(단위 : %)





## 8) 직업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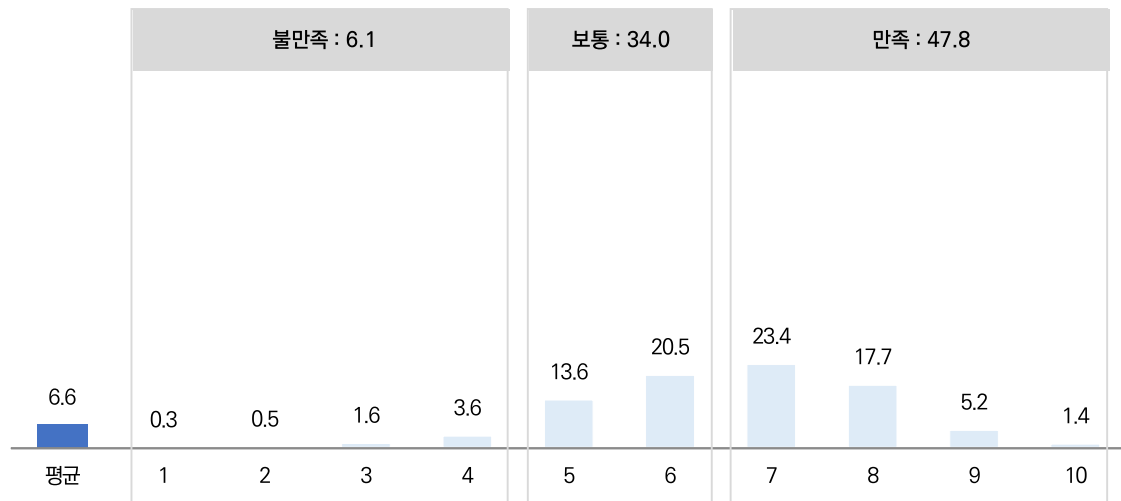
직업에 대해서는 47.8%가 만족, 10점 만점에 6.6점

- '직업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10점일수록 만족함)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6.6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만족(7점~10점)'은 47.8%, '보통(5점~6점)'은 34.0%, '불만족(1점~4점)'은 6.1%로 나타남

〈그림 2-11〉 직업에 대한 만족

문)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직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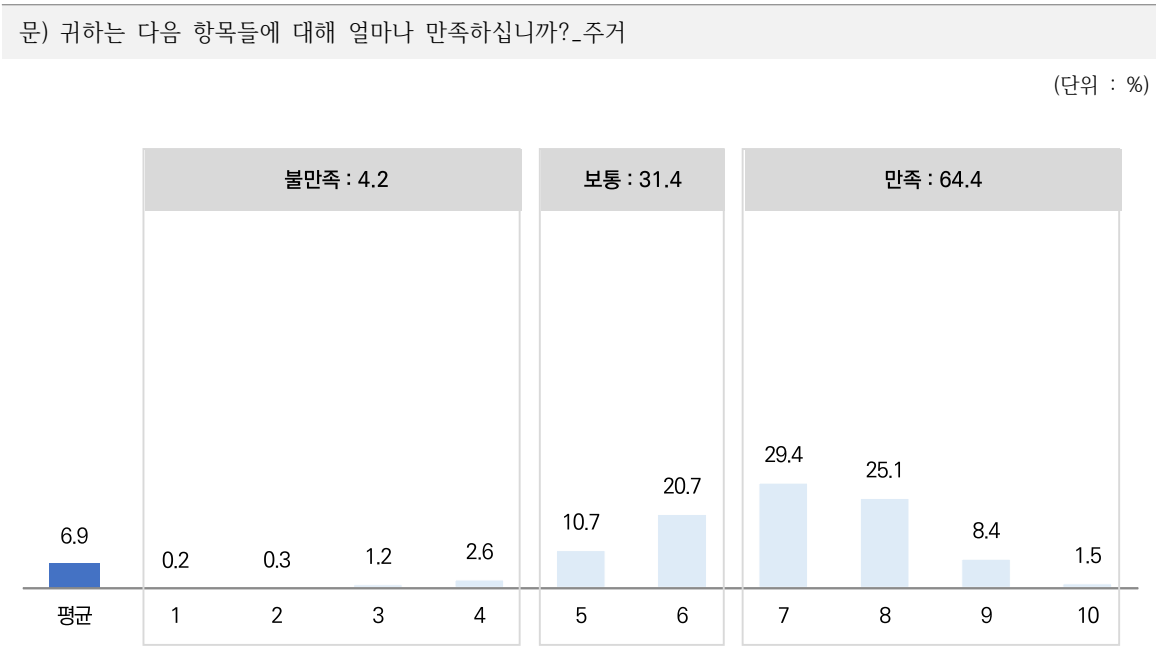


### 9) 주거에 대한 만족

주거에 대해서는 64.4%가 만족, 10점 만점에 6.9점

- '주거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10점일수록 만족함)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6.9점으로 나타남
- 64.4%의 응답자가 주거에 대해 '만족(7점~10점)'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5점~6점)'은 31.4%, '불만족(1점~4점)'은 4.2%로 나타남

〈그림 2-12〉 주거에 대한 만족



## 2. 결혼/가족생활

### 1) 결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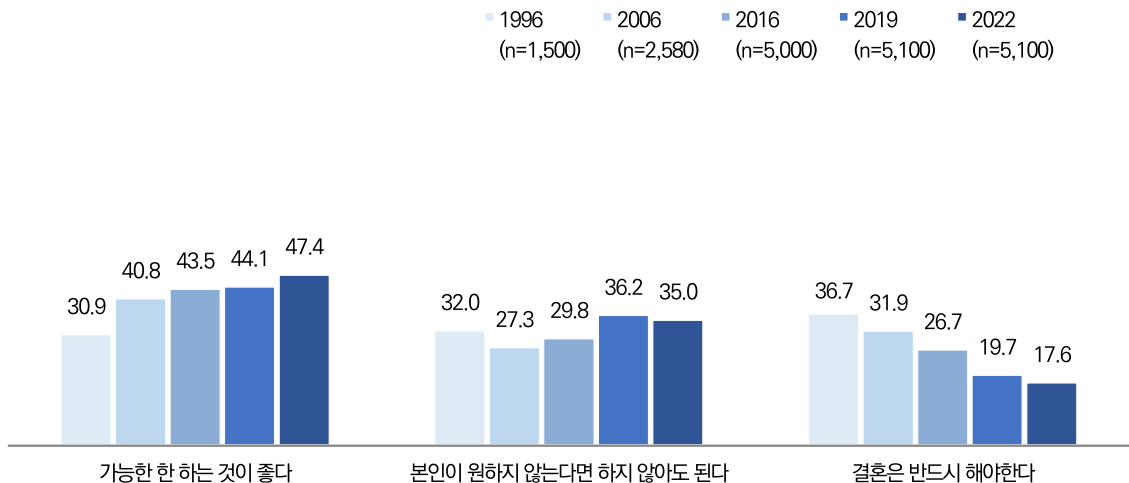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17.6%, 1996년 이후 지속적 하락세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47.4%)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35.0%),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17.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과거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와 반대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의 응답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13〉 결혼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에서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단위 : %)



## 2) 배우자 선택 기준\_1순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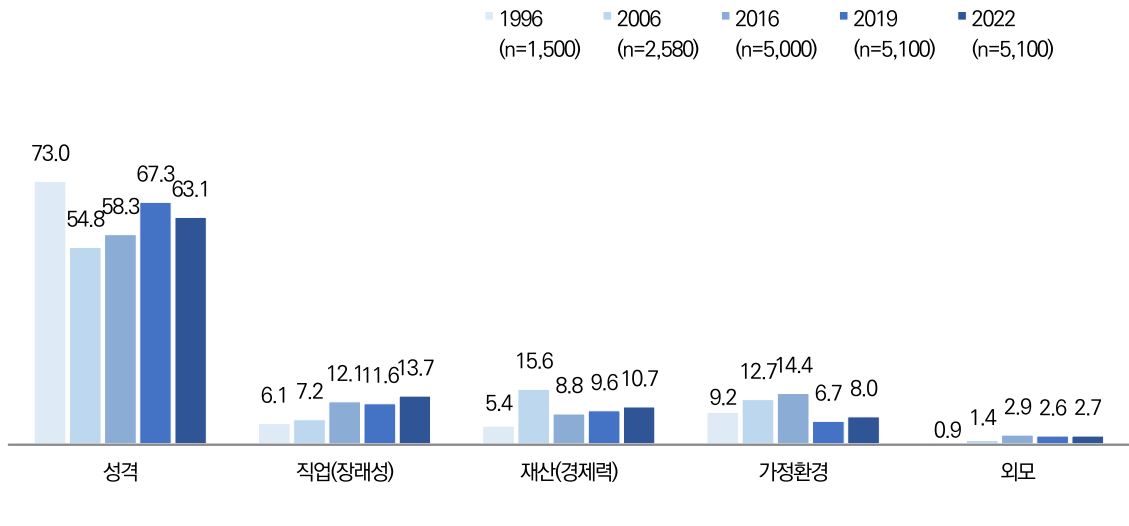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63.1%)', 1996년 첫 조사부터 계속 1위

-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성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장래성)'(13.7%), '재산(경제력)'(10.7%)이 그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남
- '성격'은 첫 조사 이래 계속하여 1위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년과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성격'의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아짐(4.2%p 감소)

〈그림 2-14〉 배우자 선택 기준\_1순위

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호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1) 2013년 조사의 경우,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요소를 중복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연도의 조사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하여 해당년도 응답 결과는 그래프에 포함하지 않았음

## 3) 혼전순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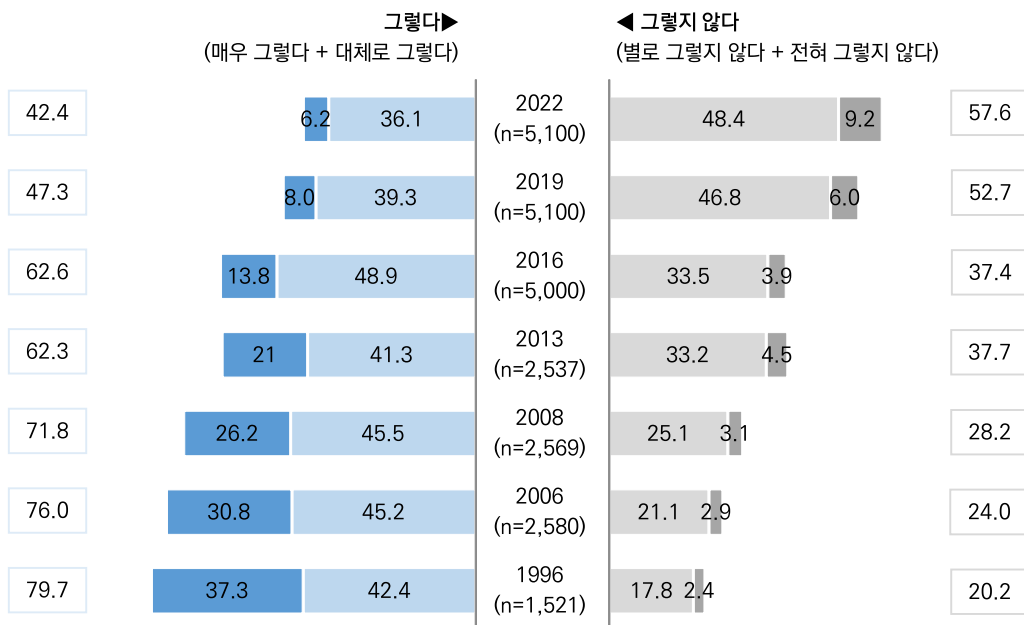
##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는 인식은 지속적 하향세

- '혼전순결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42.4%(매우 그렇다 6.2% + 대체로 그렇다 36.1%),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57.6%로 나타남 (별로 그렇지 않다 48.4% + 전혀 그렇지 않다 9.2%)
- 1996년 조사 이후,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5〉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혼전순결

문)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

(단위 : %)



#### 4) 이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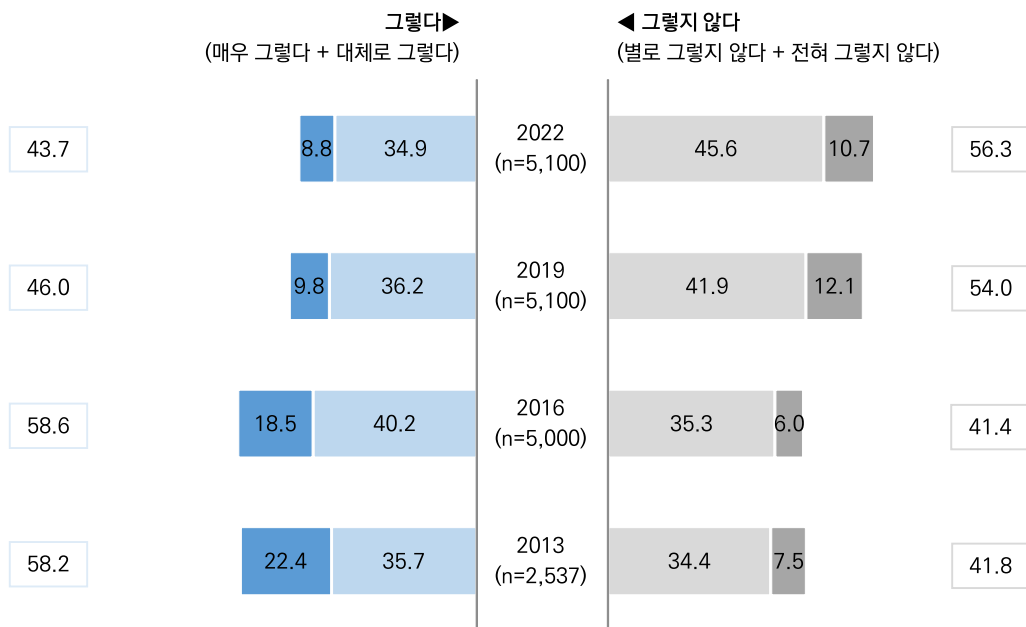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에 대해 부동의를 과반 이상(56.3%), 지속적 증가세

- '이혼은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43.7% (매우 그렇다 8.8% + 대체로 그렇다 34.9%),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56.3%로 나타남(별로 그렇지 않다 45.6% + 전혀 그렇지 않다 10.7%)
- 2013년 조사 이후,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6〉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이혼

문)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

(단위 : %)



## 5) 동거(사실혼) 대한 인식 - 동거(사실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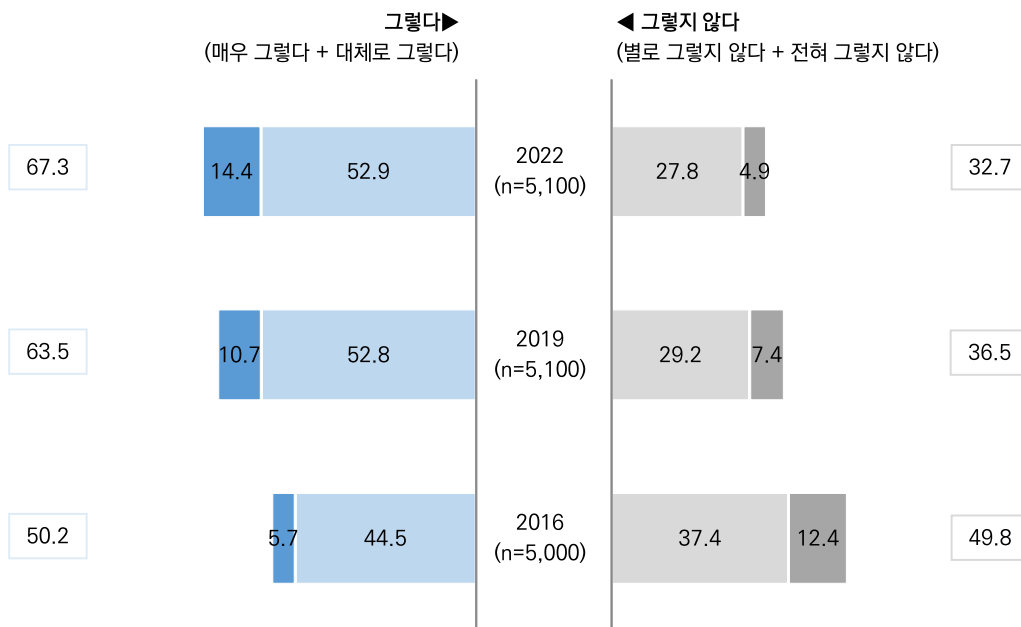
동거도 결혼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67.3%가 동의, 꾸준한 증가세

- '동거를 결혼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67.3%(매우 그렇다 14.4% + 대체로 그렇다 52.9%),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32.7%로 나타남(별로 그렇지 않다 27.8% + 전혀 그렇지 않다 4.9%)
- 2016년 조사 이후, '그렇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7〉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거(사실혼)

문)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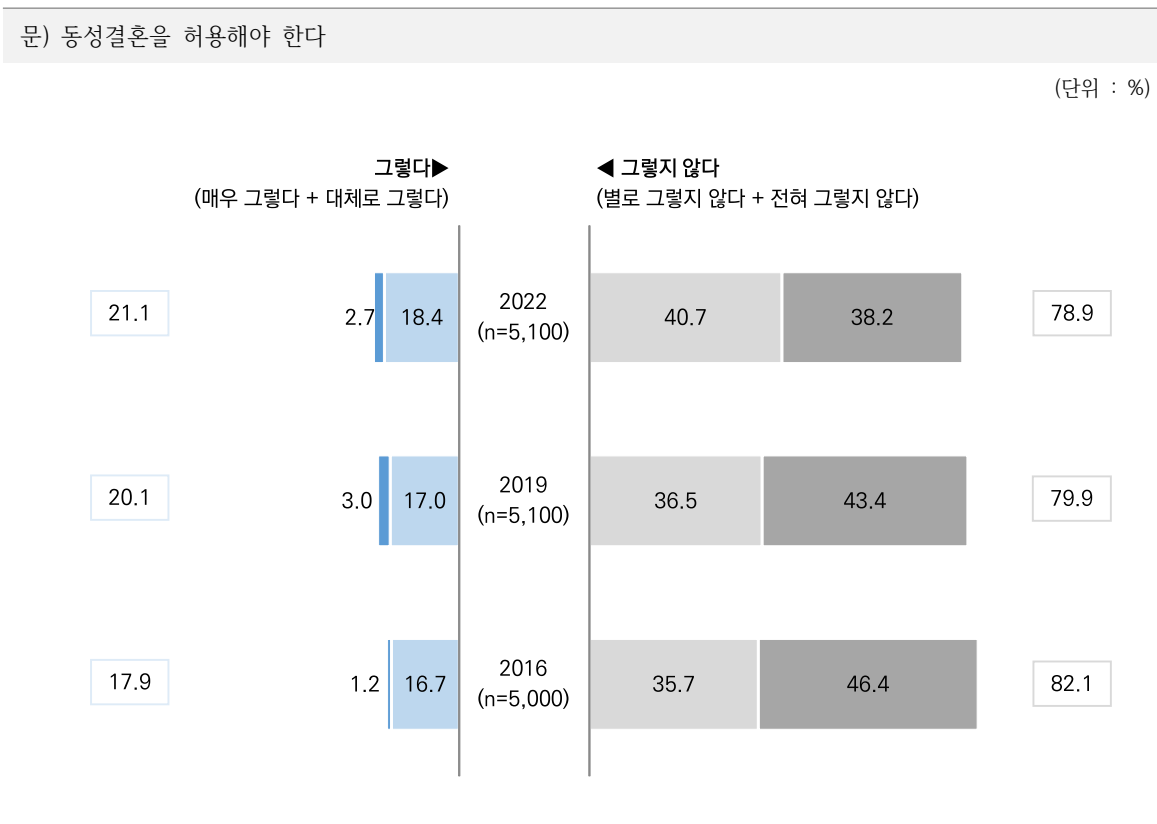


## 6)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

**10명 중 8명 정도(78.9%)는 동성결혼 허용에 동의하지 않아**

-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21.1%(매우 그렇다 2.7% + 대체로 그렇다 18.4%),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78.9%로 나타남 (별로 그렇지 않다 40.7% + 전혀 그렇지 않다 38.2%)
- 2016년 조사 이후, 소폭이지만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그림 2-18〉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





## 7) 낙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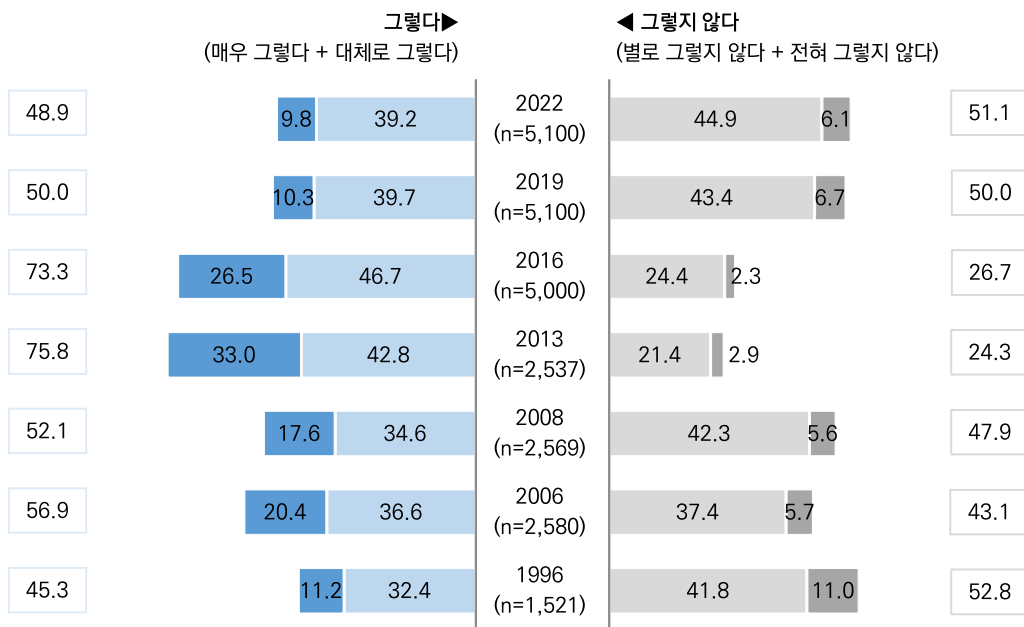
## 낙태를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팽팽

- '낙태는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48.9% (매우 그렇다 9.8% + 대체로 그렇다 39.2%),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51.1%로 나타남(별로 그렇지 않다 44.9% + 전혀 그렇지 않다 6.1%)
- 1996년을 제외하고 '낙태를 하면 안된다(=그렇다)'는 의견이 2016년까지 대부분 우세했지만,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입장차가 팽팽하게 나타남

〈그림 2-19〉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낙태

문) 낙태는 해서는 안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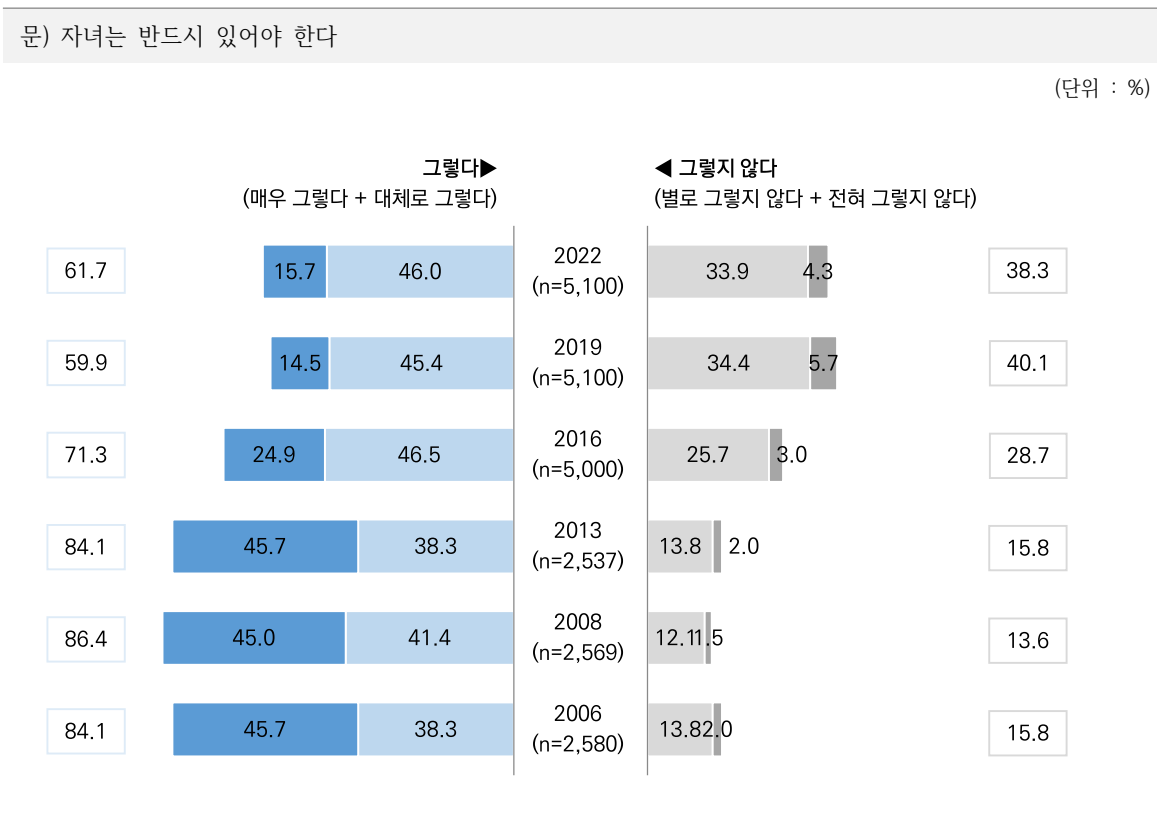


## 8) 자녀에 대한 인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61.7%는 '그렇다'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61.7%(매우 그렇다 15.7% + 대체로 그렇다 46.0%),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38.3%로 나타남 (별로 그렇지 않다 33.9% + 전혀 그렇지 않다 4.3%)
- 2019년 조사 이후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소폭이지만 증가함(1.8%p 증가)

〈그림 2-20〉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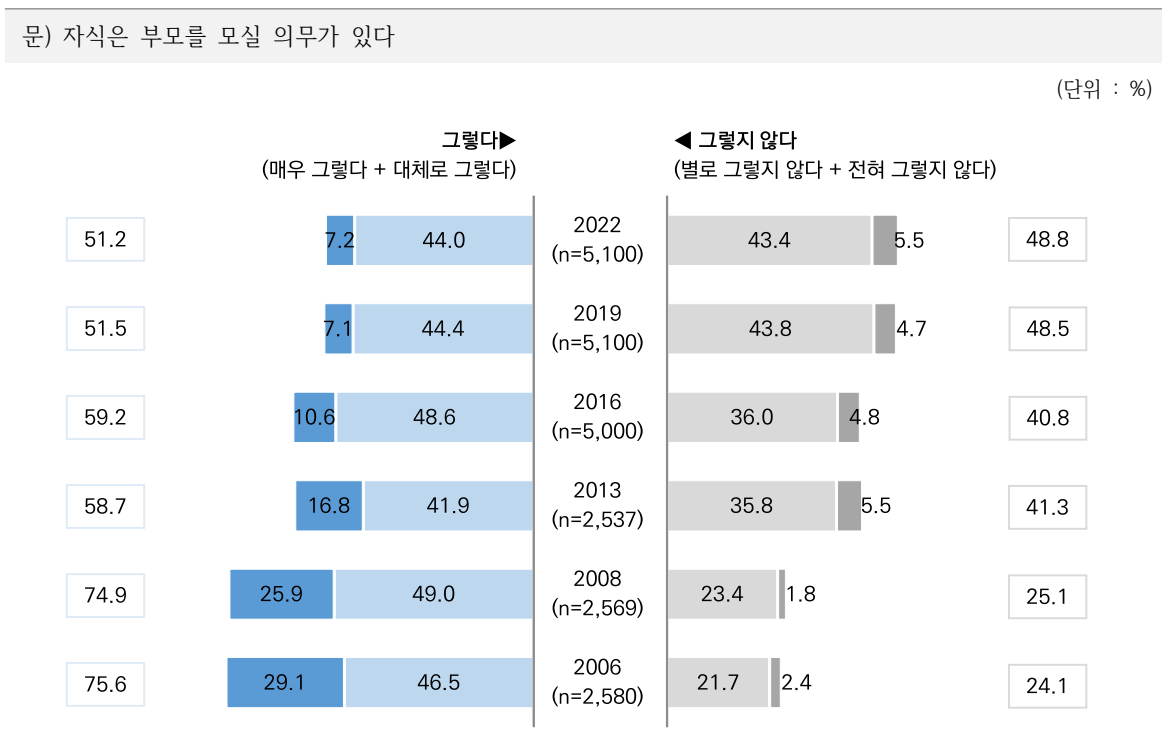


9)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sup>2)</sup>

자식이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약화되는 인식이 보여

- '자식은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51.2%(매우 그렇다 7.2% + 대체로 그렇다 44.0%), '그렇지 않다'는 48.8%임.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일수록 '그렇다'가, 저연령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과거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부모 봉양 의무감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2-2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부모 봉양



<표 2-1> 연령별 부모 봉양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점)
		① 매우	② 대체로	③ 별로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100)	7.2	44.0	51.2	43.4	5.5	48.8	100.0	(2.5)
연령	19~29세 (862)	4.8	38.9	<b>43.7</b>	48.3	8.0	56.3	100.0	(2.6)
	30~45세 (1,406)	4.5	43.3	<b>47.8</b>	46.0	6.2	52.2	100.0	(2.5)
	46~60세 (1,565)	6.6	46.3	<b>52.8</b>	41.9	5.3	47.2	100.0	(2.5)
	61~79세 (1,266)	12.6	45.3	<b>57.9</b>	38.8	3.3	42.1	100.0	(2.3)

2) 1996년 조사에서 '부모 봉양 의무'는 4점 척도가 아닌 '자식들에게 부모를 모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는지'의 유무(有無)로만 물었음. 참고로, 1996년 조사 결과에서는 72.1%가 '자녀에게 부모 봉양 의무가 있다', 26.8%는 '자녀에게 부모 봉양 의무가 없다'고 나타났음

### 10)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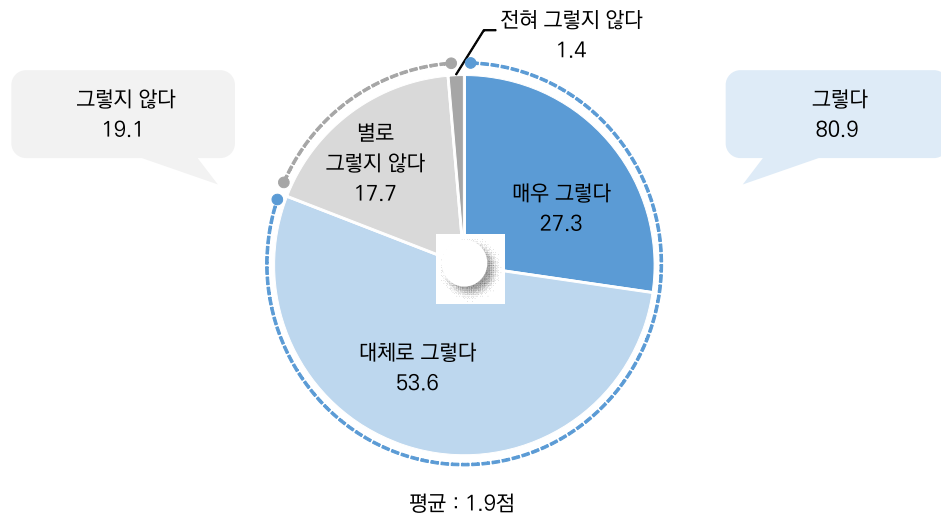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80.9%가 동의

-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지'를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1.9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80.9%(매우 그렇다 27.3% + 대체로 그렇다 53.6%),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19.1%로 나타남(별로 그렇지 않다 17.7% + 전혀 그렇지 않다 1.4%).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일수록 '그렇다'가, 반대로 저연령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그림 2-22>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

문)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한다

(단위 : %)



<표 2-3> 연령별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점)		
		① 매우	② 대체로	③ 별로	④ 전혀					
전체	(5,100)	27.3	53.6	80.9	17.7	1.4	19.1	100.0	(1.9)	
연령	19~29세	(862)	21.3	54.1	<b>75.4</b>	21.9	2.8	24.6	100.0	(2.1)
	30~45세	(1,406)	24.0	55.3	<b>79.3</b>	19.4	1.3	20.7	100.0	(2.0)
	46~60세	(1,565)	28.4	52.2	<b>80.6</b>	18.2	1.2	19.4	100.0	(1.9)
	61~79세	(1,266)	33.7	53.1	<b>86.8</b>	12.5	0.8	13.2	100.0	(1.8)

## 11) 가정 경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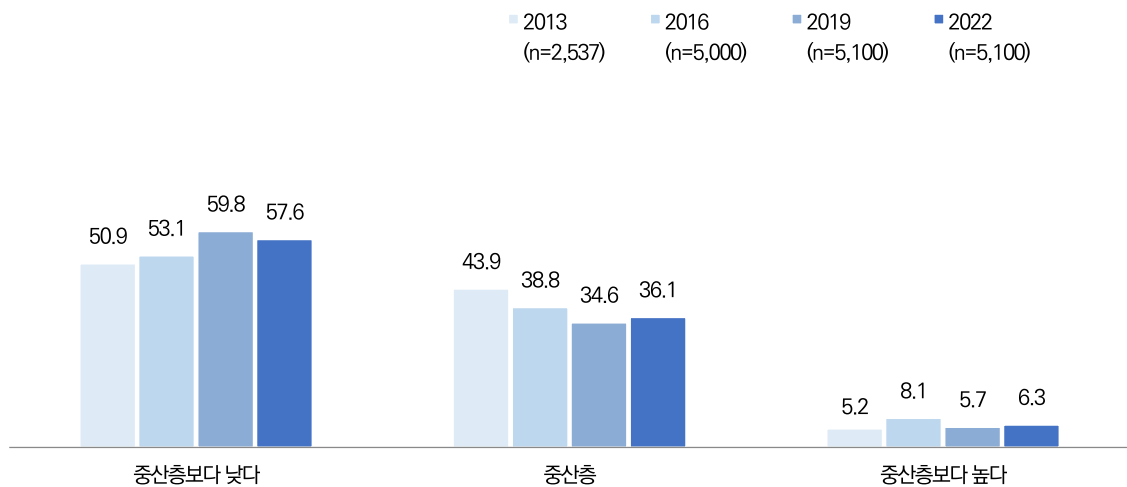
과반 이상(57.6%)의 국민이 스스로 '중산층보다 낮다'고 인식

-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물어본 결과, '중산층보다 낮다'의 응답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중산층'(36.1%), '중산층보다 높다'(6.3%) 순으로 응답됨
- 2019년 조사 이후 스스로를 '중산층보다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 추세로 전환됨(2.2%p 감소). 이와 반대로 '중산층'과 '중산층보다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 추세로 전환됨(각 1.5%p, 0.6%p 증가)

〈그림 2-23〉 가정 경제 수준

문) 귀하 가정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12)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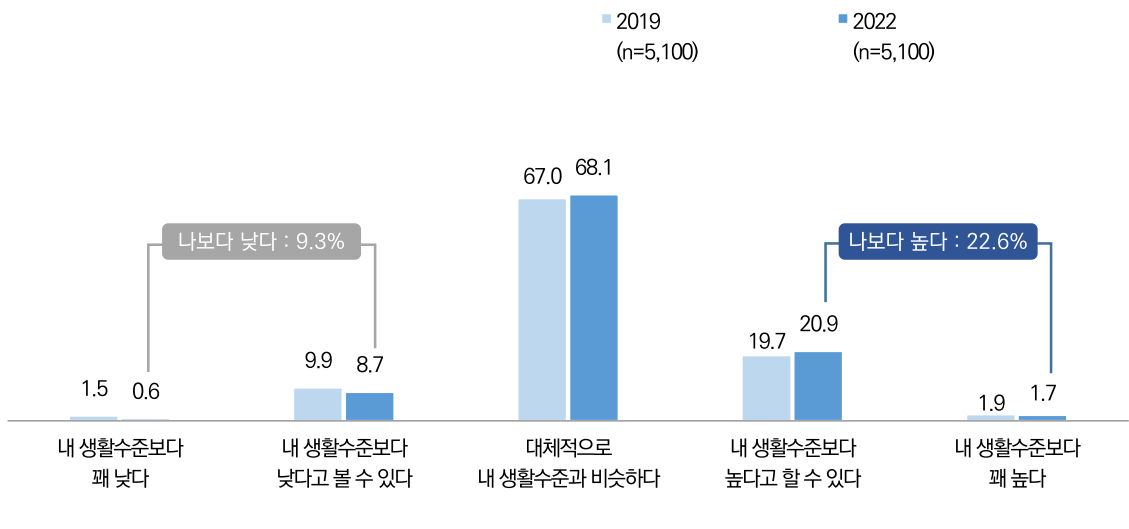
10명 중 7명(68.1%) 정도는 주변의 생활수준이 본인과 비슷하다고 느껴

-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68.1%). 뒤를 이어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20.9%)가 응답됨
- 2019년과 큰 차이 없이, 2022년에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을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22.6%는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20.9% + 내 생활수준 보다 꽤 높다 1.7%)

〈그림 2-24〉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문) 귀하는 귀하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귀하의 생활수준보다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3. 일/여가/노후생활

#### 1)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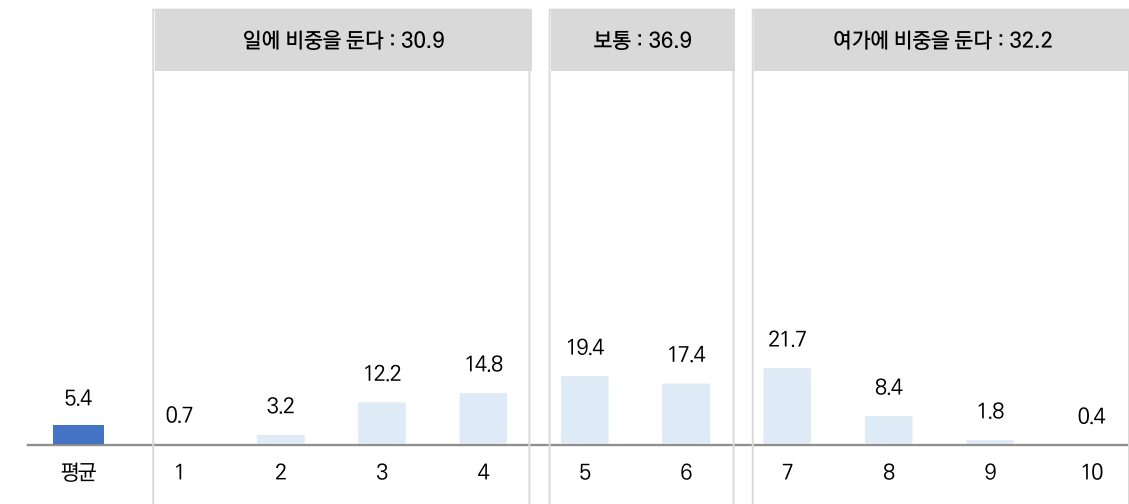
일과 여가가 균형이 맞는 경우는 36.9%, 여가에 비중을 두는 경우도 32.2%

-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10점 척도(10점일수록 여가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5.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일에 비중을 둔다(1점~4점)'는 30.9%, '보통(5점~6점)'은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7점~10점)'는 32.2%로 나타남

〈그림 2-25〉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

문) 귀하는 현재 '일(학업)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단위 : %)



3) 2019년 조사에서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은 10점 척도가 아니라 '일과 여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보다는 여가를 즐기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은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여가를 더 즐기고 있다', '일과 여가를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있다', '일이 중심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기고 있다', '여가보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와 같은 척도로 조사하였음. 이에 2019년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 그래프를 생성하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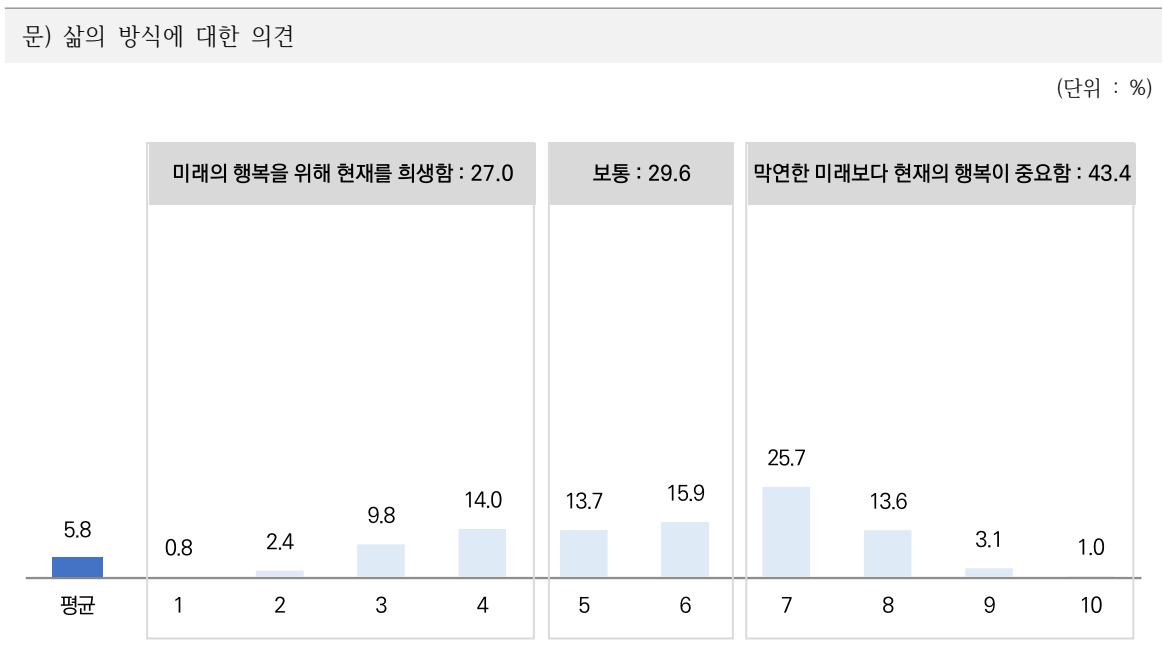
참고 차원에서 2019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17.1%가 '일보다는 여가를 즐긴다'고 응답하였고, 48.4%가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

## 2)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43.4%는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동의

-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10점 척도(1점: 미래의 행복이 중요, 10점: 현재의 행복이 중요)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5.8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7점~10점)'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5점~6점)' 29.6%, '미래의 행복이 중요하다(1점~4점)' 27.0% 순으로 나타남. 한편,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동의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26>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표 2-3> 연령별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함 (1+2+3+4)	보통 (5+6)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함 (7+8+9+10)	계	평균 (점)	
전체	(5,100)	27.0	29.6	43.4	100.0	(5.8)	
연령	19~29세	(862)	30.8	28.7	40.5	100.0	(5.7)
	30~45세	(1,406)	29.4	29.6	40.9	100.0	(5.7)
	46~60세	(1,565)	28.4	30.1	41.5	100.0	(5.7)
	61~79세	(1,266)	20.0	29.6	50.4	100.0	(6.2)



## 4. 사회적지지/가치관 일반

### 1)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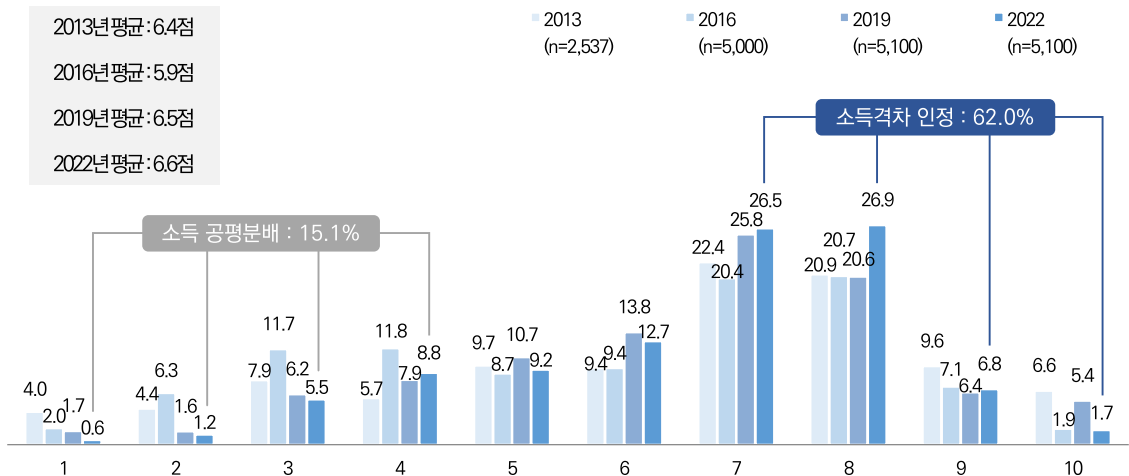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에 62.0%가 동의

-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10점: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6.6점으로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함. 7~10점에 응답한 경우를 '소득 격차 인정'으로 묶을 경우, 62.0%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조사결과를 제외하면, 2022년 조사 결과는 과거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다만, 8점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약 6.0%p 증가)

〈그림 2-27〉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소득 공평분배 vs. 소득격차 인정

(단위 : %)



## 2) 생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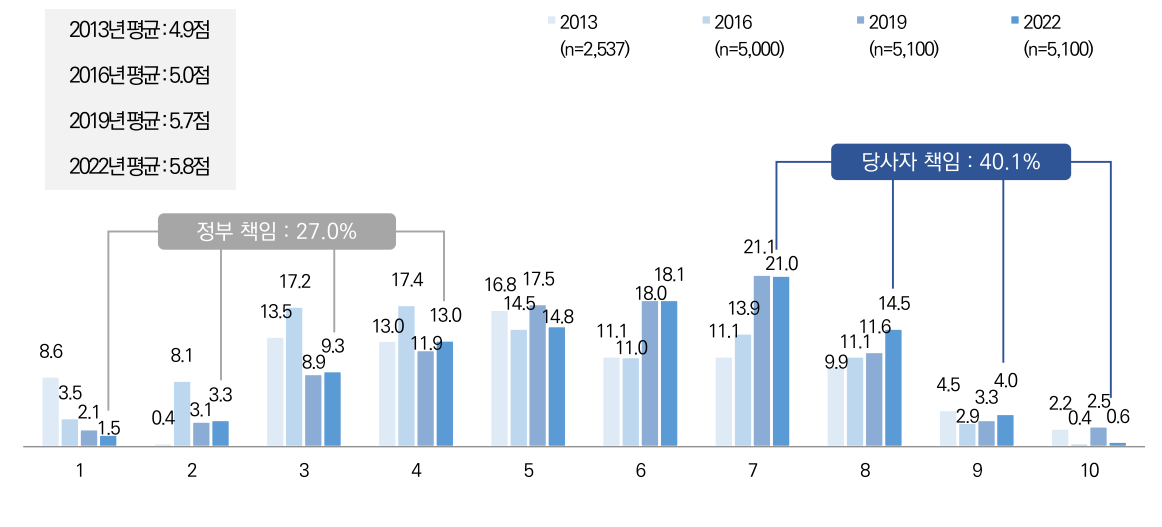
생계/복지의 책임은 '당사자가' 더 책임지는 것에 40.1%가 동의

- '생계/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 10점: 당사자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8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 응답 비율을 보면, '정부 책임(1점~4점)'은 27.0%, '보통(5점~6점)'은 32.9%, '당사자 책임(7점~10점)'은 40.1%로 생계/복지의 책임 주체는 '당사자 책임(7점~10점)'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함

〈그림 2-28〉 생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정부 책임 vs. 당사자 책임

(단위 : %)



## 3) 경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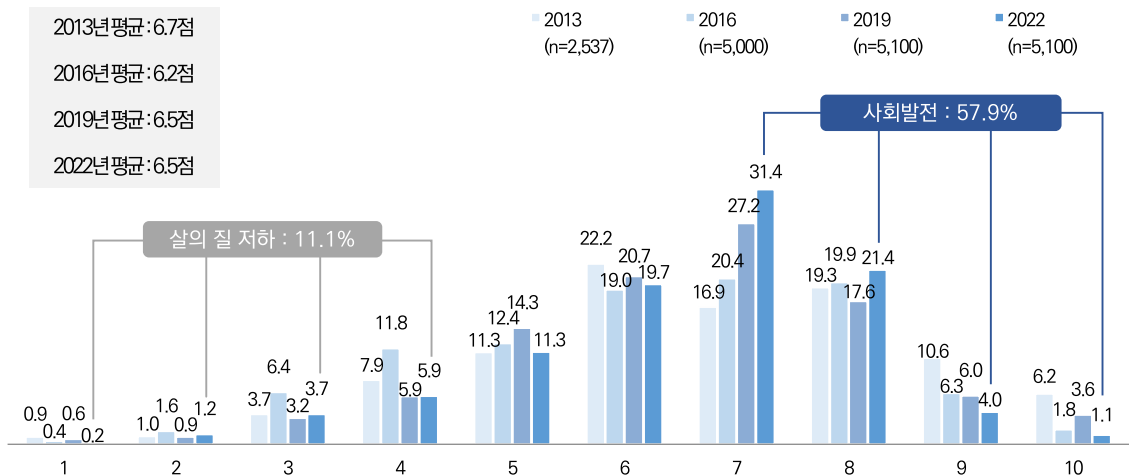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에 57.9%가 동의

- '경쟁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경쟁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10점: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6.5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 응답 비율을 보면, '삶의 질 저하(1점~4점)'는 11.1%, '보통(5점~6점)'은 31.0%, '사회 발전(7점~10점)'은 57.9%로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짐

〈그림 2-29〉 경쟁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경쟁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 vs. 경쟁으로 인해 사회 발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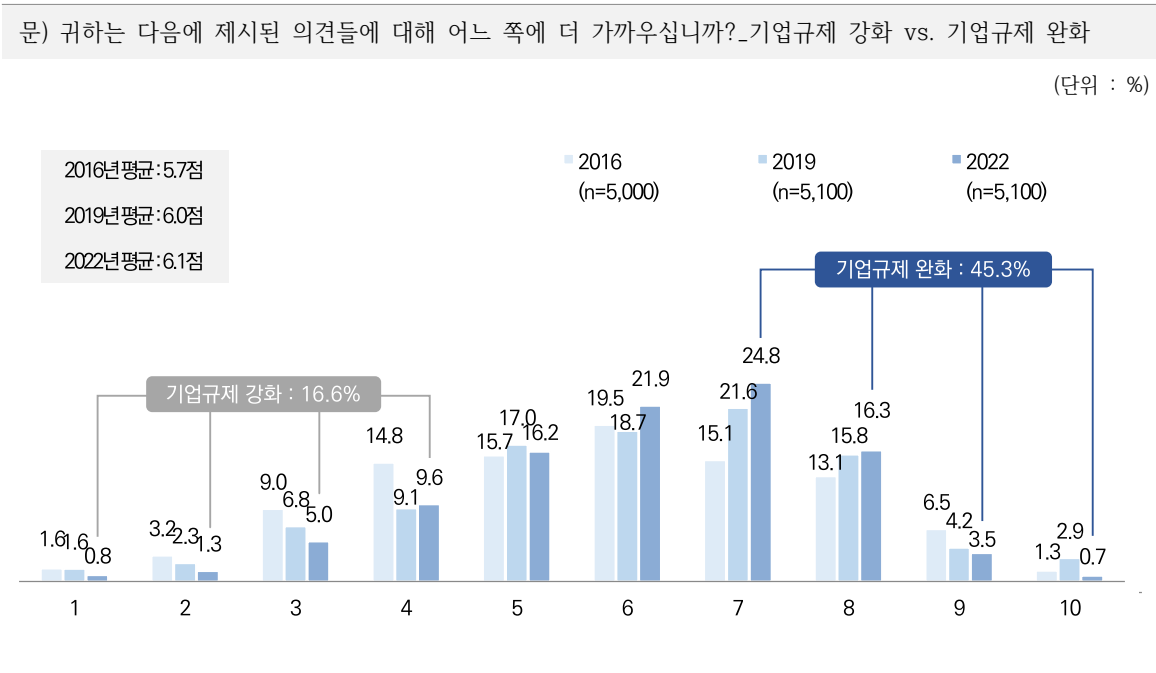


#### 4)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기업 규제 완화' 45.3% vs. '기업규제 강화' 16.6%**

-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10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6.1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기업규제 강화(1점~4점)'는 16.6%, '보통(5점~6점)'은 38.1%, '기업규제 완화(7점~10점)'는 45.3%로 '정부의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다소 기울어짐

〈그림 2-30〉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 5)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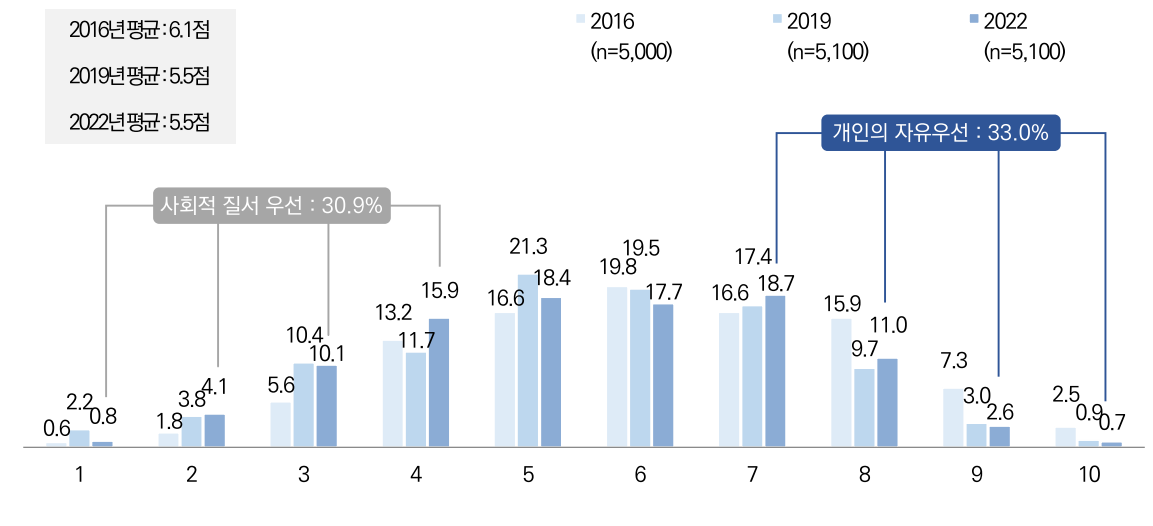
사회적 질서 우선(30.9%) vs. 개인적 자유 우선(33.0%)으로 팽팽

-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 시되어야 한다, 10점: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적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5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적 질서 우선(1점~4점)'은 30.9%, '보통(5점~6점)'은 36.1%, '개인의 자유 우선(7점~10점)'은 33.0%로 나타남. 평균값과 비율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은 비등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31〉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사회적 질서 우선 vs. 개인의 자유 우선

(단위 : %)



## 6)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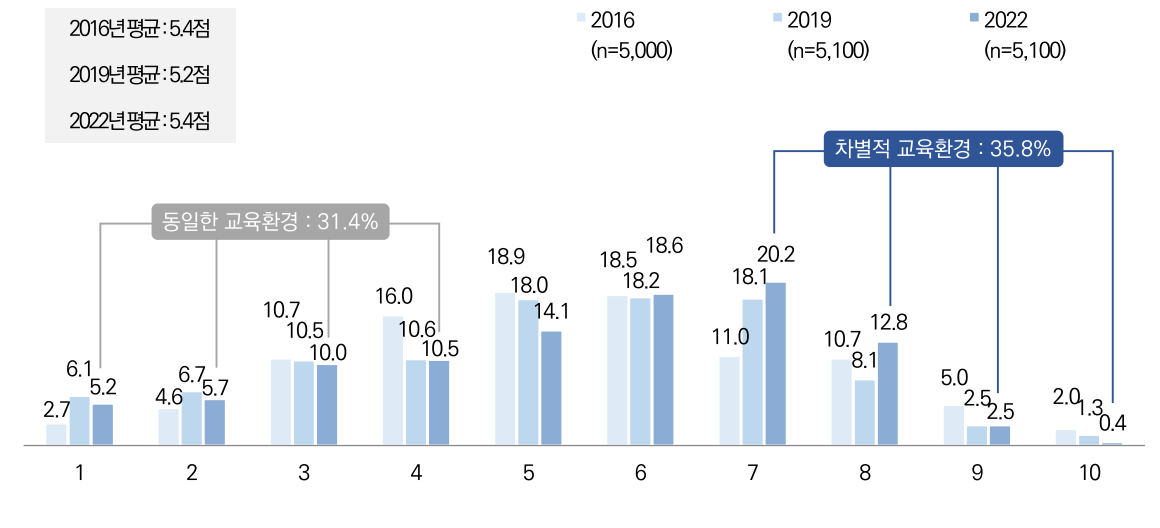
동일한 교육환경(31.4%) vs. 차별적 교육환경(35.8%)로 팽팽

-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10점: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4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동일한 교육환경(1점~4점)'은 31.4%, '보통(5점~6점)'은 32.8%, '뛰어난 학생에 특별한 교육환경(7점~10점)'은 35.8%로 나타나 차별적 교육환경 쪽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평균값과 비율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의견은 비등하다고도 할 수 있음

〈그림 3-32〉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환경 vs. 뛰어난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환경

(단위 : %)



## 7)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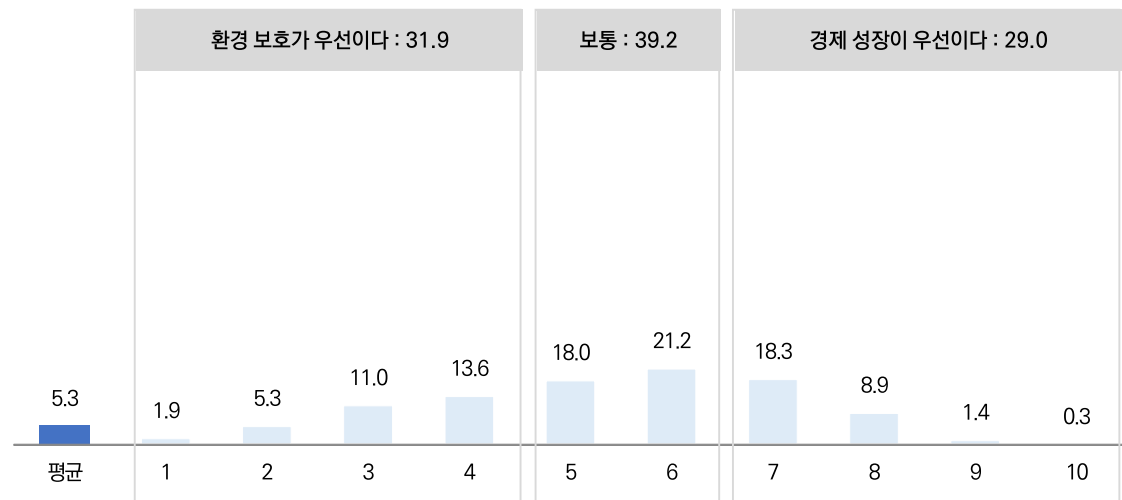
환경보호 우선(31.9%) vs. 경제 성장 우선(29.0%)으로 팽팽

-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 10점: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3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 응답 비율을 보면, '환경 보호 우선(1점~4점)'은 31.9%, '보통(5점~6점)'은 39.2%, '경제 성장 우선(7점~10점)'은 29.0%로 환경 보호에 대한 양 쪽의 의견은 서로 팽팽한 상황임

〈그림 2-33〉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환경 보호 vs. 경제성장

(단위 : %)



## 5. 갈등/신뢰/공정

### 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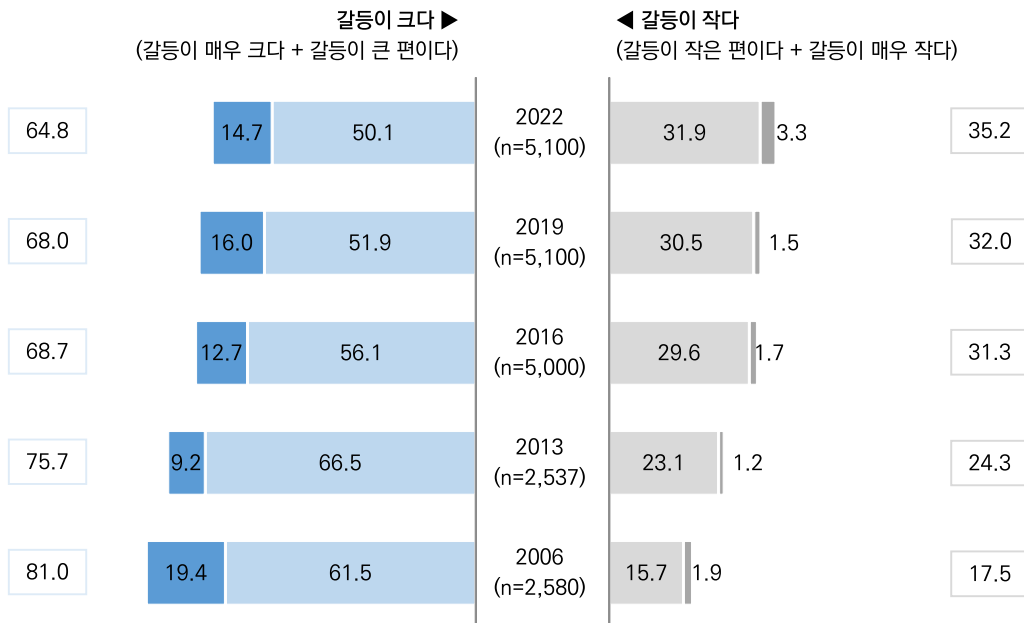
####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의 갈등이 '크다' 64.8%

-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64.8%(갈등이 매우 크다 14.7% + 갈등이 큰 편이다 50.1%), '갈등이 작다'는 35.2%(갈등이 작은 편이다 31.9% + 갈등이 매우 작다 3.3%)로 나타남
- 대다수의 응답자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2-34〉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 vs. 젊은세대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 기성세대 vs. 젊은세대

(단위 : %)





## 2)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업가와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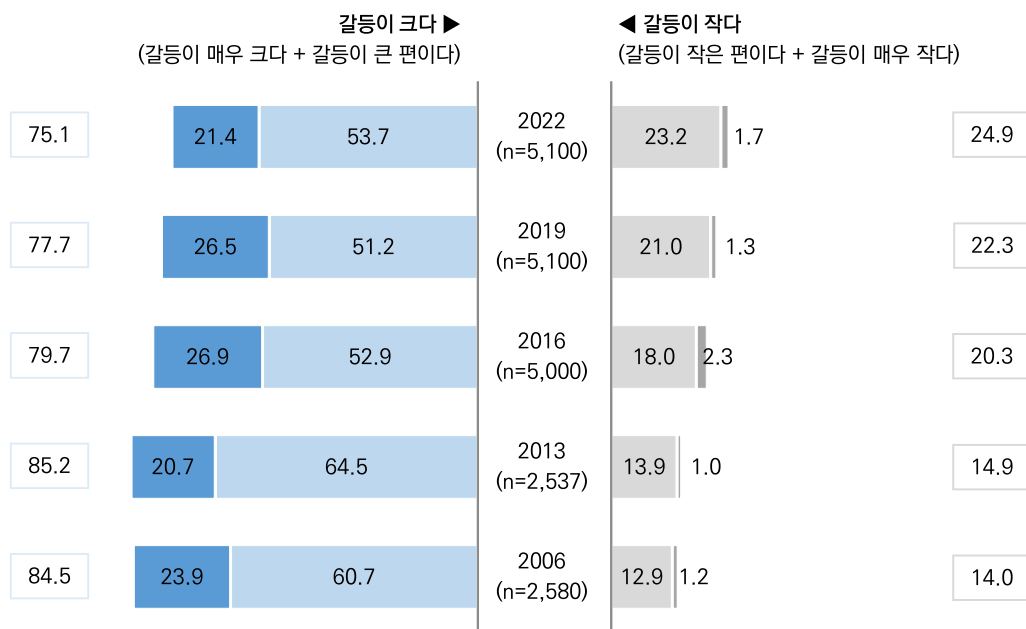
## 기업가와 근로자의 갈등이 '크다' 75.1%

-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75.1%(갈등이 매우 크다 21.4% + 갈등이 큰 편이다 53.7%), '갈등이 작다'는 24.9%(갈등이 작은 편이다 23.2% + 갈등이 매우 작다 1.7%)로 나타남
- 여전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그림 2-3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업가와 근로자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기업가 vs. 근로자

(단위 : %)



### 3)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부유층과 서민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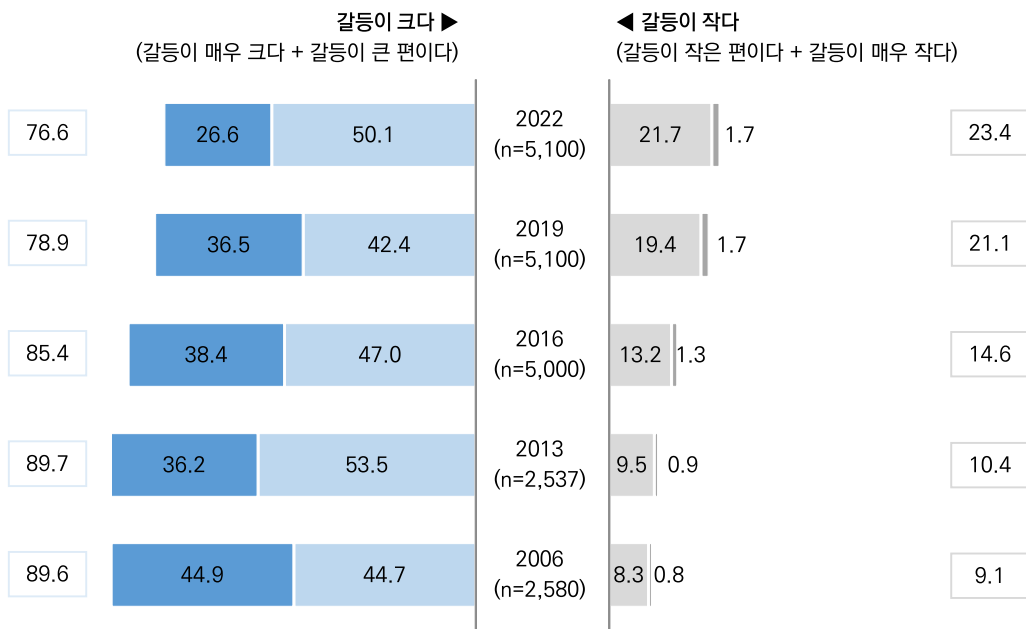
**부유층과 서민층의 갈등이 '크다' 76.6%**

-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76.6%(갈등이 매우 크다 26.6% + 갈등이 큰 편이다 50.1%), '갈등이 작다'는 23.4%(갈등이 작은 편이다 21.7% + 갈등이 매우 작다 1.7%)로 나타남
- 여전히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지만,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고 응답된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그림 2-36〉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부유층과 서민층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부유층 vs. 서민층

(단위 : %)



## 4)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과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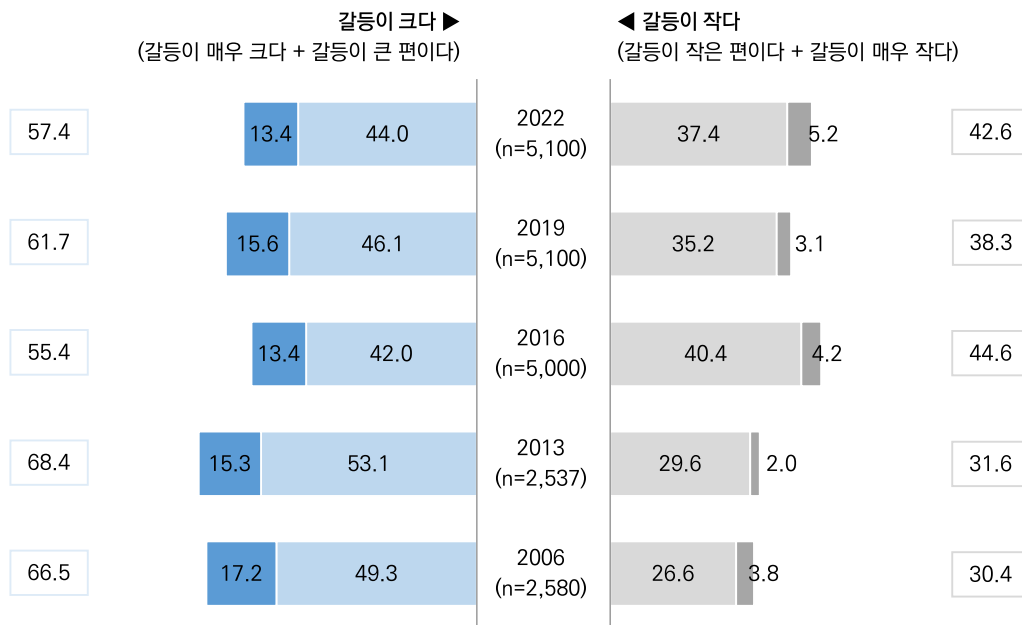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크다' 57.4%

-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57.4%(갈등이 매우 크다 13.4% + 갈등이 큰 편이다 44.0%), '갈등이 작다'는 42.6%(갈등이 작은 편이다 37.4% + 갈등이 매우 작다 5.2%)로 나타남
-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50~60%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그림 2-37〉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과 지방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수도권 vs. 지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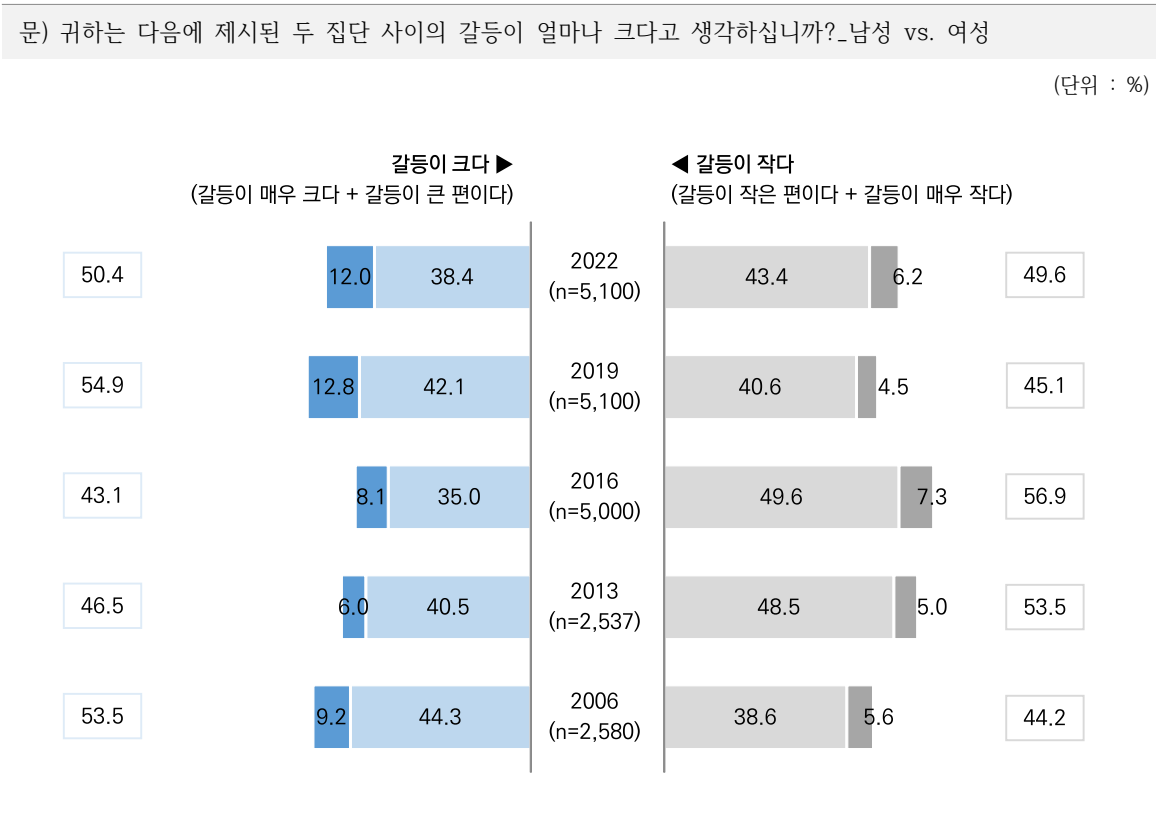


### 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크다' 50.4%**

-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50.4%(갈등이 매우 크다 12.0% + 갈등이 큰 편이다 38.4%), '갈등이 작다'는 49.6%(갈등이 작은 편이다 43.4% + 갈등이 매우 작다 6.2%)로 나타남
- 2019년에 '갈등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그림 2-38〉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



## 6)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진보와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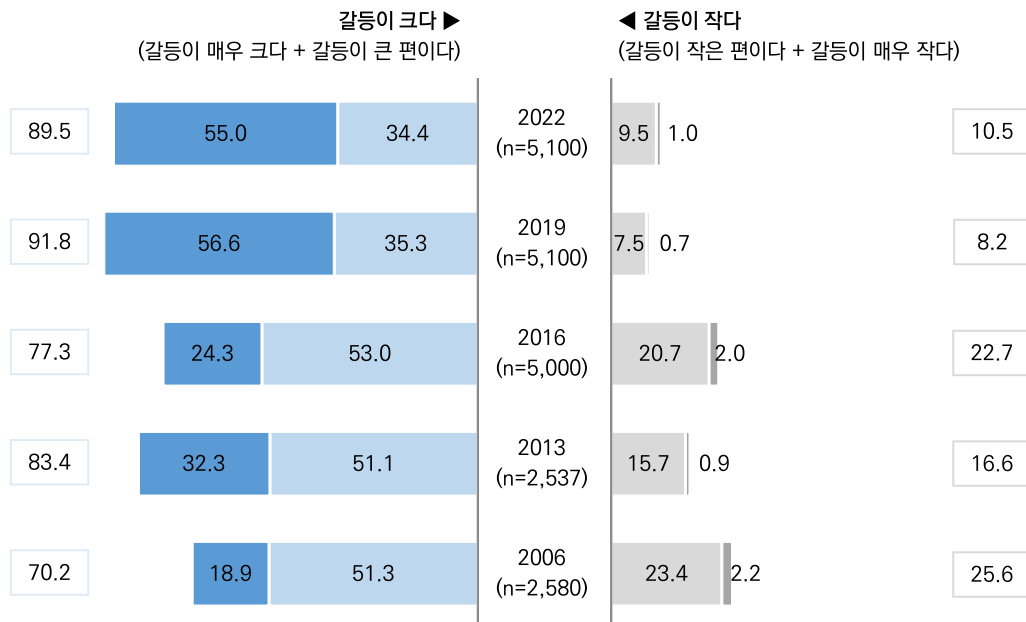
##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크다' 89.5% : 집단 중 최고치

-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89.5%(갈등이 매우 크다 55.0% + 갈등이 큰 편이다 34.4%), '갈등이 작다'는 10.5%(갈등이 작은 편이다 9.5% + 갈등이 매우 작다 1.0%)로 나타남. '갈등이 크다'는 응답 비율 89.5%는, 보기로 제시된 9개의 집단 간 갈등 중 가장 큰 수치임
- 2019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후, 그 추세가 2022년에도 유지되고 있음. 특히 강한 의견인 '매우 크다'의 응답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39〉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진보와 보수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진보 vs. 보수

(단위 : %)



### 7)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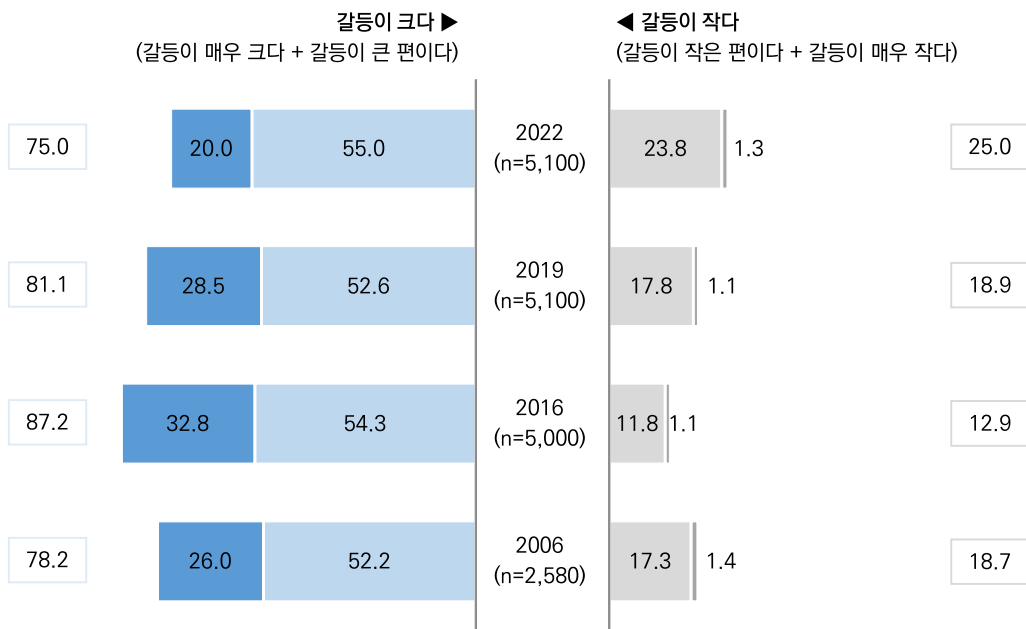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크다' 75.0%**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75.0%(갈등이 매우 크다 20.0% + 갈등이 큰 편이다 55.0%), '갈등이 작다'는 25.0%(갈등이 작은 편이다 23.8% + 갈등이 매우 작다 1.3%)로 나타남
-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2016년에 최고치(87.2%)를 보인 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그림 2-40〉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대기업 vs. 중소기업

(단위 : %)



## 8)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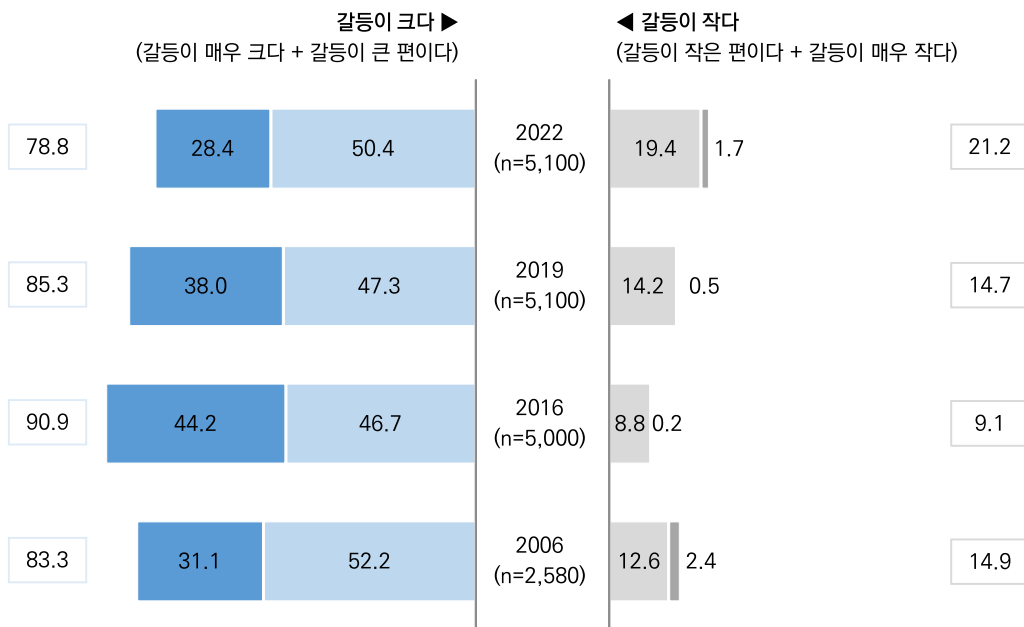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크다' 78.8%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78.8%(갈등이 매우 크다 28.4% + 갈등이 큰 편이다 50.4%), '갈등이 작다'는 21.2%(갈등이 작은 편이다 19.4% + 갈등이 매우 작다 1.7%)로 나타남
-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2016년에 최고치(90.9%)를 보인 후,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남

〈그림 2-4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정규직 vs. 비정규직

(단위 : %)



### 9)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인과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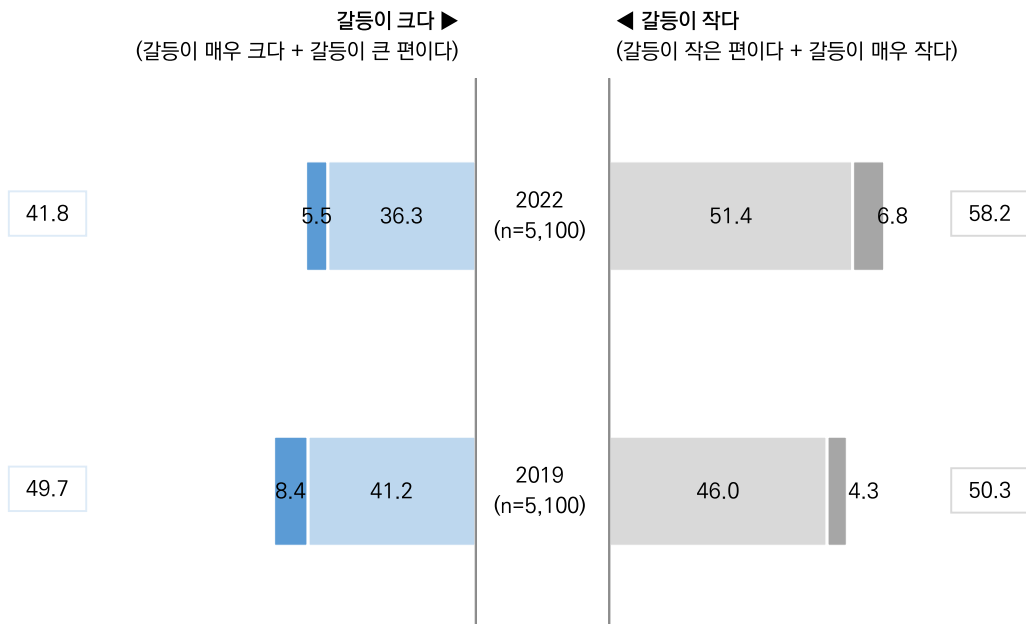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이 '크다' 41.8% : 집단 중 최저치**

-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 비율은 41.8%(갈등이 매우 크다 5.5% + 갈등이 큰 편이다 36.3%), '갈등이 작다'는 58.2%(갈등이 작은 편이다 51.4% + 갈등이 매우 작다 6.8%)로 나타남. '갈등이 크다'는 응답 비율 41.8%는 보기로 제시된 9개의 집단 간 갈등 중 가장 작은 수치임
-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작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응답 비율이 비등하게 나타났던 2019년 조사 결과와 분명한 차이를 보임

〈그림 2-42〉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인과 외국인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한국인 vs. 외국인

(단위 : %)





## 10) 경제적 양극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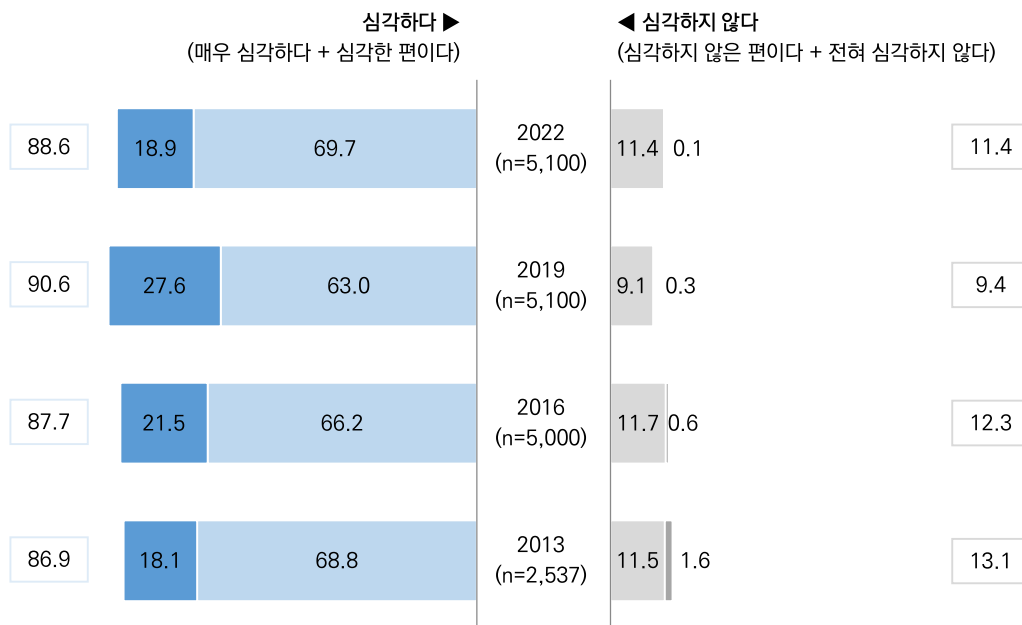
10명 중 9명 정도(88.6%)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88.6%의 응답자가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8.9% + 심각한 편이다 69.7%)고 응답함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심각하다(매우 심각+심각한 편)'는 응답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는데(-2.0%p),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18.9%)은 2019년 결과(27.6%)보다 8.7%p나 줄어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임

〈그림 2-43〉 경제적 양극화 인식

문) 귀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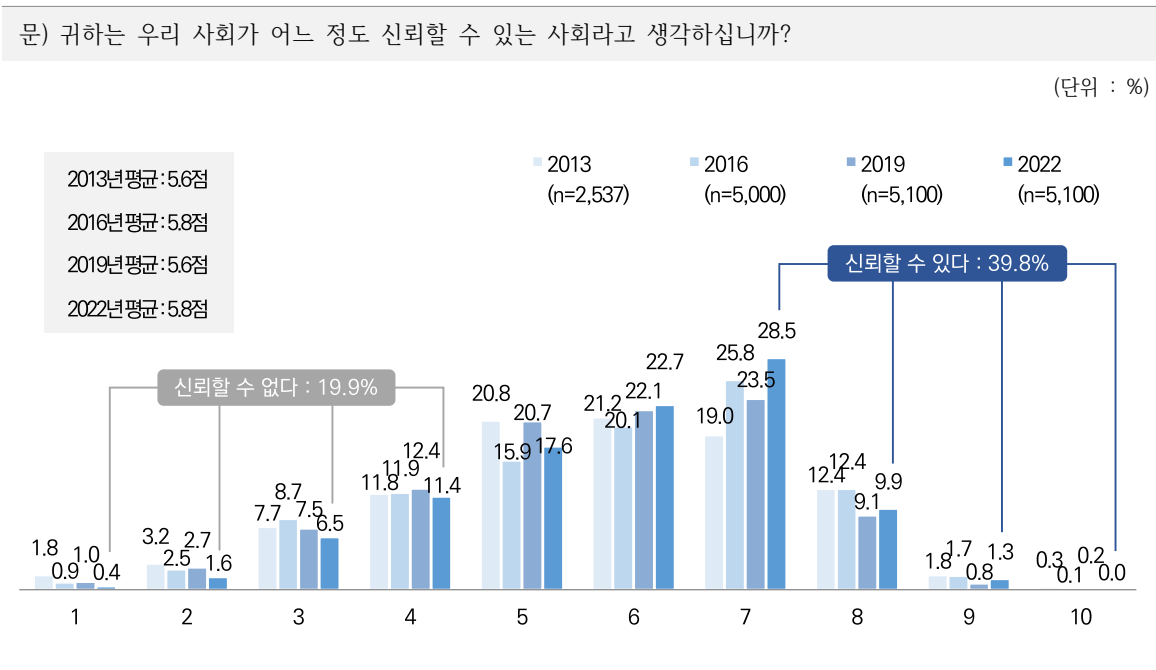


### 1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 39.8% vs. 신뢰할 수 '없다' 19.9%

-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10점일수록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5.8점으로 '보통' 수준임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신뢰할 수 없다(1점~4점)'는 19.9%, '보통(5점~6점)'은 40.3%, '신뢰할 수 있다(7점~10점)'는 39.8%로 나타나,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보다 2배 가량 더 높음

〈그림 2-44〉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 12)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두뇌(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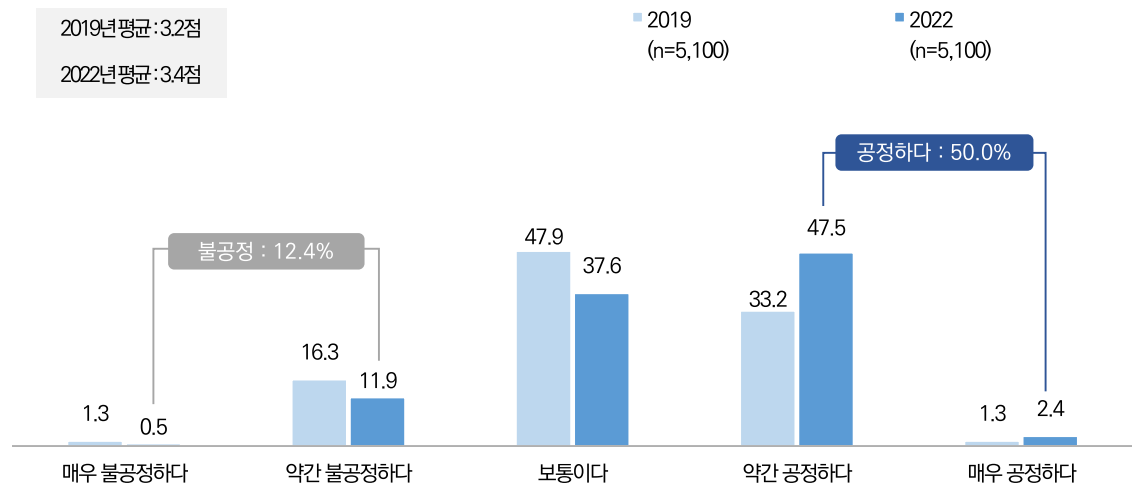
내 두뇌(능력) 대비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50.0%

- '자신이 가진 두뇌(능력)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매우 불공정하다, 5점: 매우 공정하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 + 약간 불공정하다)'는 12.4%, '보통'은 37.6%,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 + 매우공정하다)'는 50.0%로, '공정하다'는 의견이 더 높음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 공정하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14.3%p 증가)

〈그림 2-45〉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두뇌(능력)

문)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_두뇌(능력)

(단위 : %)



### 13)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일과 관련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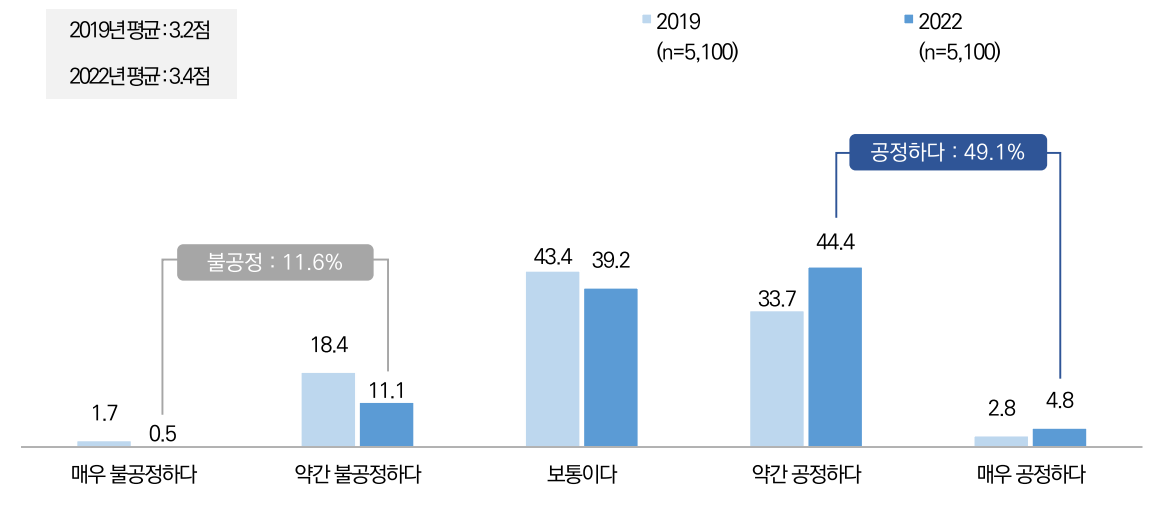
**내가 가진 일과 관련된 기술 대비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49.1%**

- '자신이 가진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5점 척도 (1점: 매우 불공정하다, 5점: 매우 공정하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 + 약간 불공정하다)'는 11.6%, '보통'은 39.2%,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 + 매우공정하다)'는 49.1%로 '공정하다'는 의견이 더 높음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감소하고(7.3%p 감소), '약간 공정하다'는 응답은 증가(10.7%p 증가)

〈그림 2-46〉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일과 관련된 기술

문)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_ 일과 관련된 기술

(단위 : %)



## 14)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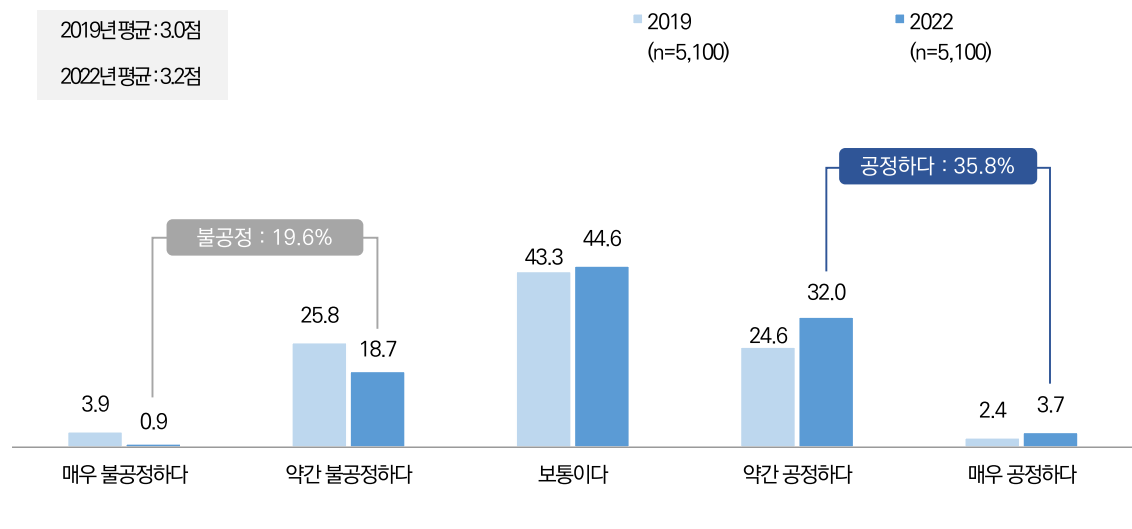
## 노력 대비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35.8%

- '자신이 가진 노력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매우 불공정하다, 5점: 매우 공정하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 + 약간 불공정하다)'는 19.6%, '보통'은 44.6%,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 + 매우공정하다)'는 35.8%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음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감소하고(7.1%p 감소), '약간 공정하다'는 응답은 증가(7.4%p 증가)

〈그림 2-47〉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노력

문)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_노력

(단위 : %)



### 15)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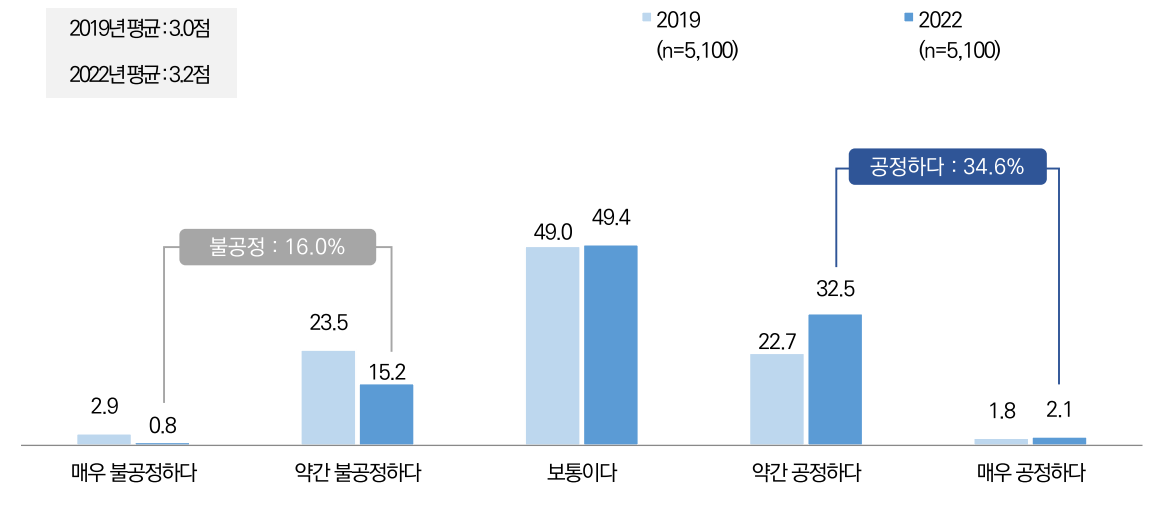
**경력 대비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34.6%**

- '자신이 가진 경력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에 대해 5점 척도(1점: 매우 불공정하다, 5점: 매우 공정하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 비율을 보면,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 + 약간 불공정하다)'는 16.0%, '보통'은 **49.4%**,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 + 매우공정하다)'는 34.6%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음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감소하고(8.3%p 감소), '약간 공정하다'는 응답은 증가(9.8%p 증가)

〈그림 2-48〉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경력

문)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_경력

(단위 : %)



## 6. 사회일반/참여

### 1)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_1순위<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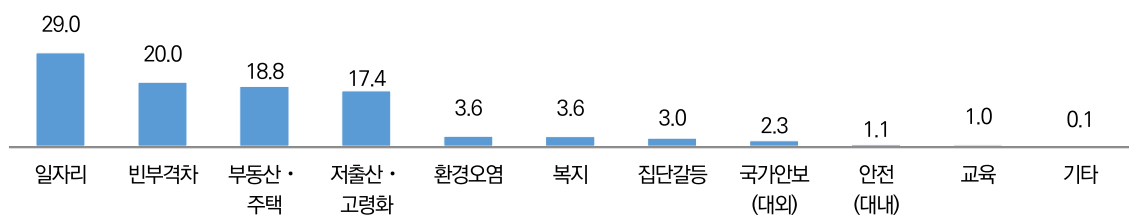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일자리(29.0%)

-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일자리'(29.0%)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빈부격차'(20.0%), '부동산·주택'(18.8%), '저출산·고령화'(17.4%) 순임
-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문제들(일자리, 빈부격차, 부동산·주택, 저출산·고령화)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응답 비율은 모두 4% 미만으로 상당히 낮음

〈그림 2-49〉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_1순위

문) 귀하는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4) 2019년 조사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와 거의 동일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질문과 문항 형식이 변경 (단일 문항 -> 순위형 문항)되면서 과거 조사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하여 2013, 2016, 2019년 조사 결과는 제외됨

## 7. 문화/역사/정체성

### 1)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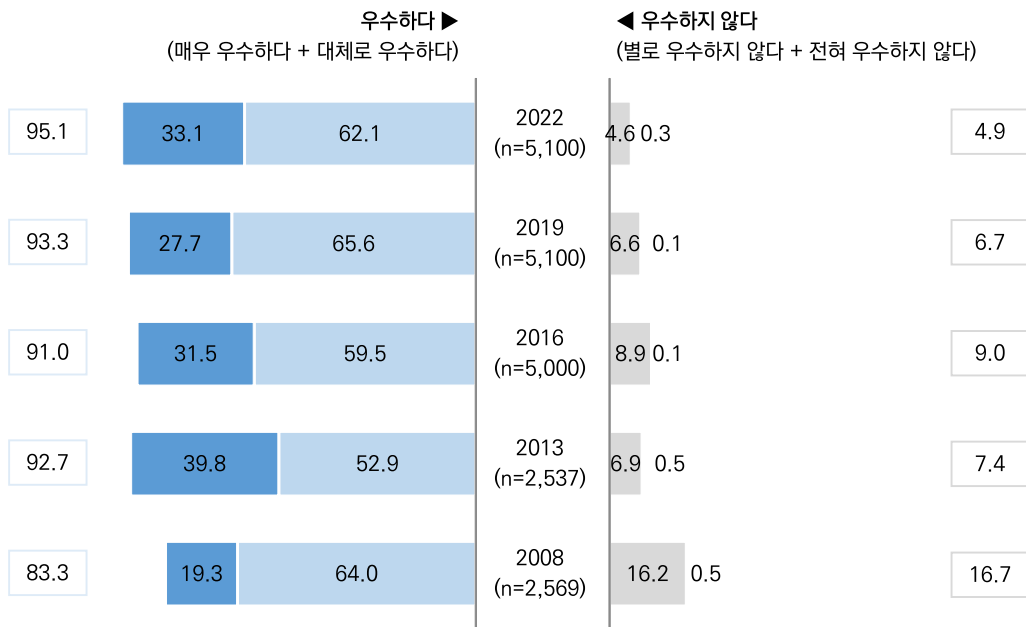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이 '우수하다' 95.1%**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우수하다'의 응답 비율이 95.1%(매우 우수하다 33.1% + 대체로 우수하다 62.1%), '우수하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4.9%(별로 우수하지 않다 4.6% + 전혀 우수하지 않다 0.3%)로 나타남
- 2013년부터 꾸준히 90%가 넘는 국민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이 '우수하다'고 인식

〈그림 2-50〉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문) 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_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단위 : %)





## 2)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정신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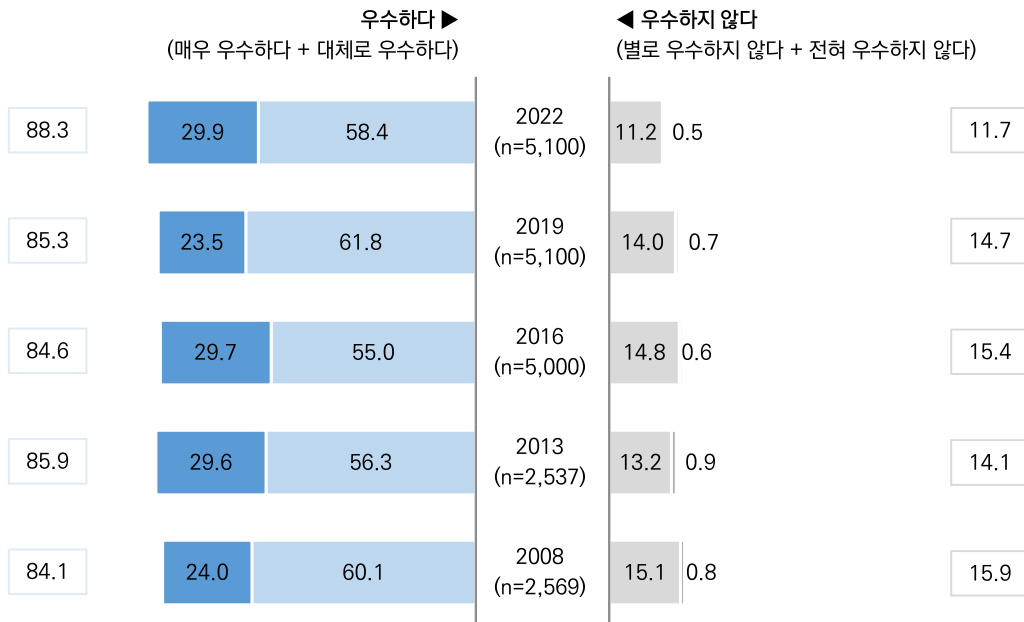
## 한국의 정신문화가 '우수하다' 88.3%

-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우수하다'의 응답 비율은 88.3%(매우 우수하다 29.9% + 대체로 우수하다 58.4%), '우수하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11.7% (별로 우수하지 않다 11.2% + 전혀 우수하지 않다 0.5%)로 나타남
- 2008년 조사 이후,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그림 2-51〉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정신문화(총·효·예 및 정(情) 등)

문) 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_한국의 정신문화(총·효·예 및 정(情) 등)

(단위 : %)



### 3)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대중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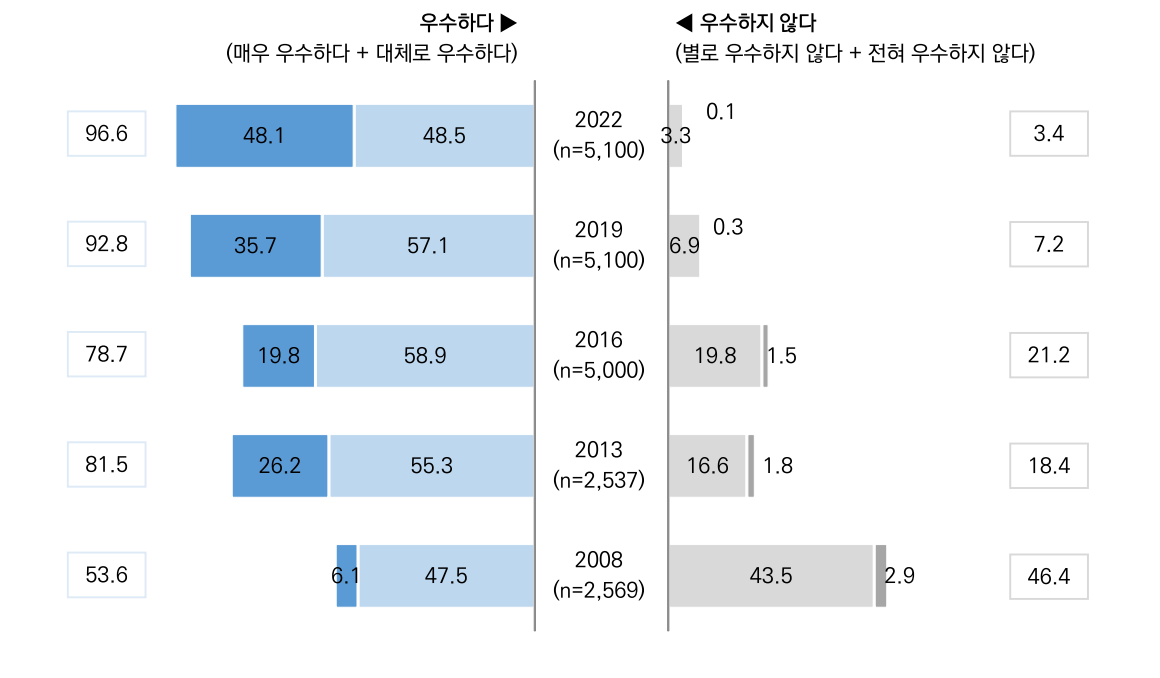
**한국의 대중문화가 '우수하다' 96.6%**

-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우수하다'는 응답 비율이 96.6%(매우 우수하다 48.1% + 대체로 우수하다 48.5%), '우수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3.4% (별로 우수하지 않다 3.3% + 전혀 우수하지 않다 0.1%)로 나타남
- 2008년 조사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조사에서 96.6%로 나타나면서 최고치를 경신함. 이는 2008년과 비교하면 33.0%p 상승한 수치임

〈그림 3-52〉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문) 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_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단위 : %)



## 4)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다문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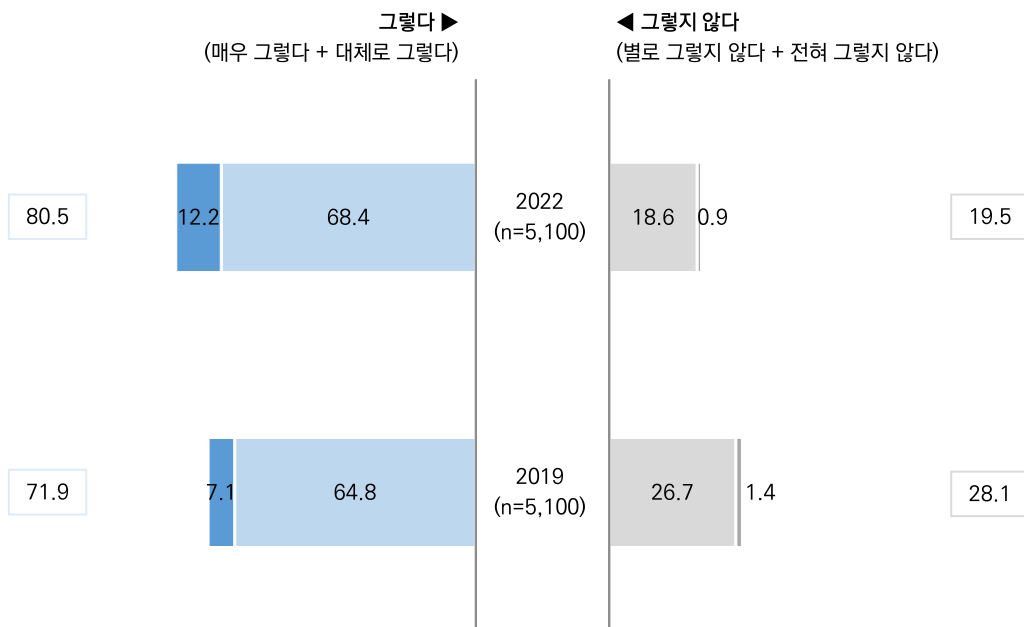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80.5%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80.5%(매우 그렇다 12.2% + 대체로 그렇다 68.4%),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19.5% (별로 그렇지 않다 18.6% + 전혀 그렇지 않다 0.9%)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6%p 상승함

〈그림 2-53〉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다문화 가정

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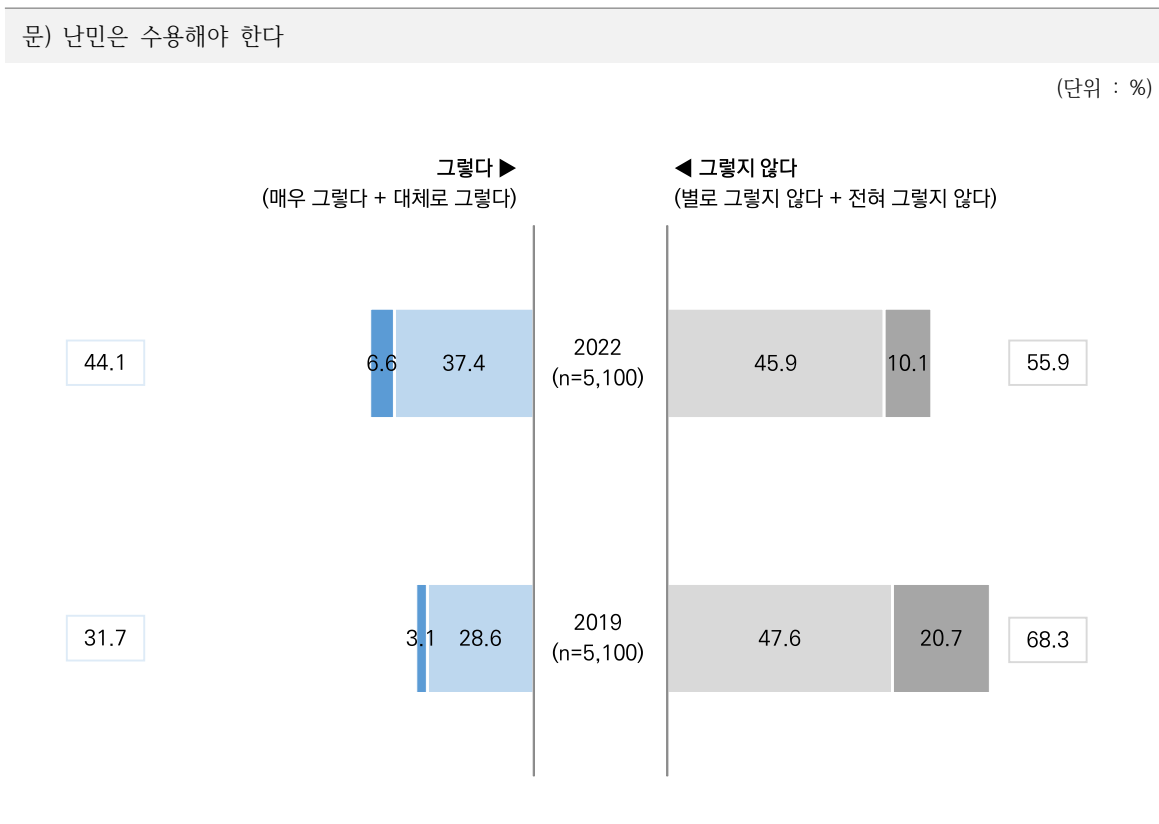


### 5)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44.1%**

-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44.1%(매우 그렇다 6.6% + 대체로 그렇다 37.4%),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55.9%(별로 그렇지 않다 45.9% + 전혀 그렇지 않다 10.1%)로 나타남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12.4%p나 증가하여 변화되는 인식이 관찰됨

〈그림 2-54〉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 6)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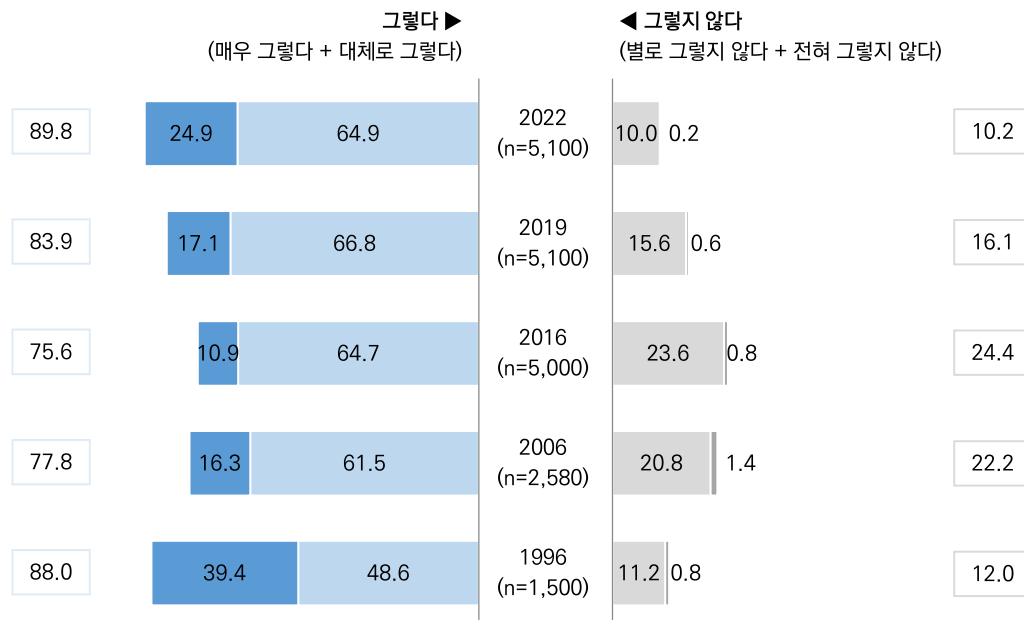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운지'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89.8%(매우 그렇다 24.9% + 대체로 그렇다 64.9%),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10.2%(별로 그렇지 않다 10.0% + 전혀 그렇지 않다 0.2%)로 나타남
- 1996년 조사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0%로 높게 집계되었지만, 2016년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이후 2019년 조사에서 전년도 대비 8.3%p 상승한 83.9%로 추세가 전환 되고, 2022년 조사에서 89.8%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함

〈그림 2-55〉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문)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단위 : %)



## 7)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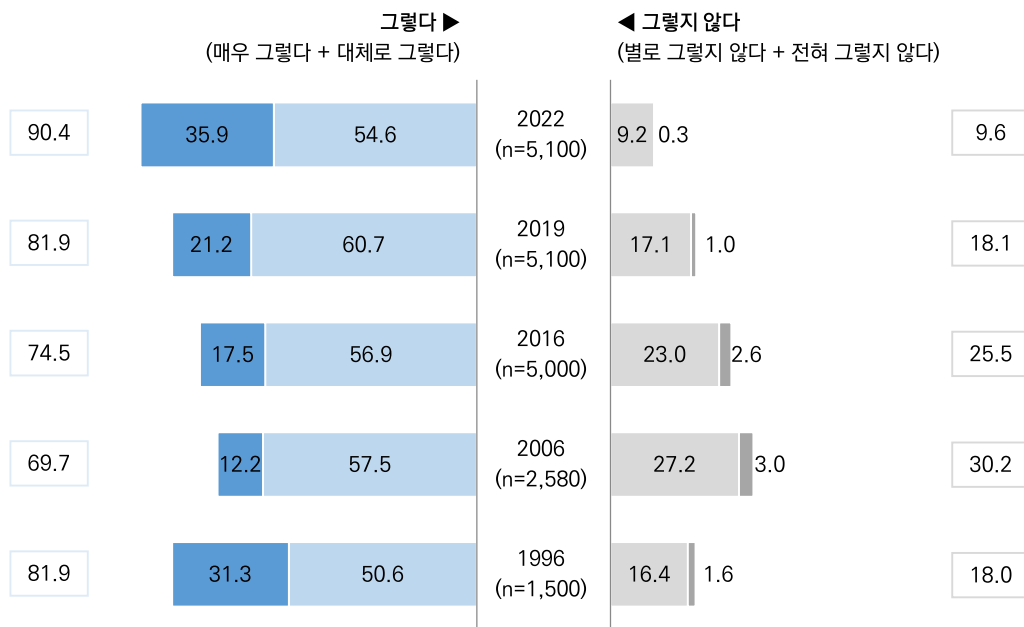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 90.4%

-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90.4%(매우 그렇다 35.9% + 대체로 그렇다 54.6%),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9.6%(별로 그렇지 않다 9.2% + 전혀 그렇지 않다 0.3%)로 나타남
- 1996년 조사에는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81.9%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69.7%로 감소하였음. 이후 2016년에 74.5%, 2019년에 81.9%, 2022년에는 90.4%로 나타나며 크게 반등하였음

〈그림 2-56〉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문)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 8)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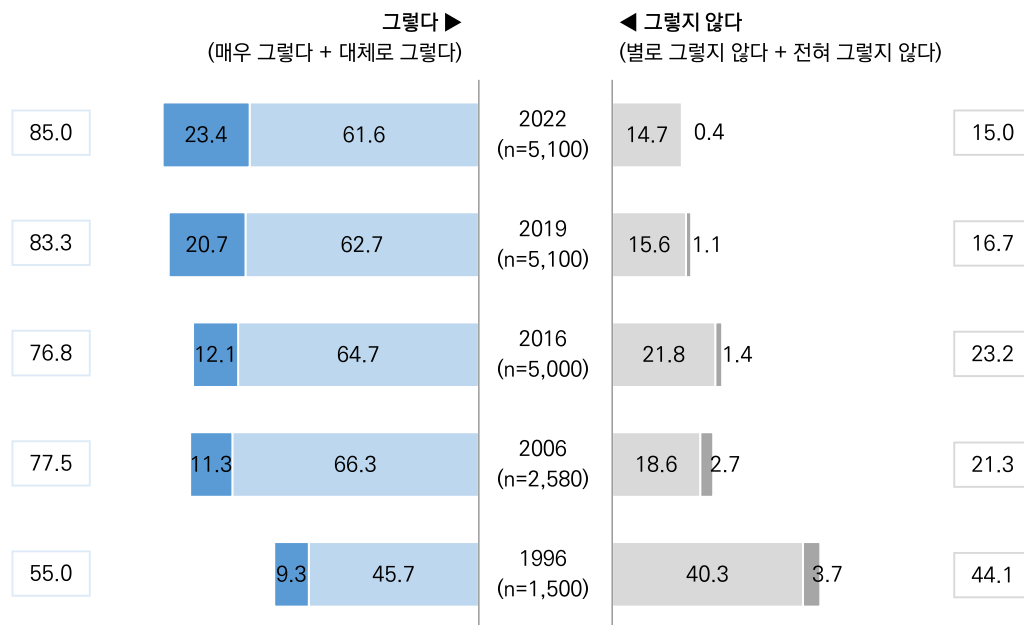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0%

- '우리나라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85.0%(매우 그렇다 23.4% + 대체로 그렇다 61.6%),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15.0%(별로 그렇지 않다 14.7% +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나타남
- 1996년 조사 이래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2-57〉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문)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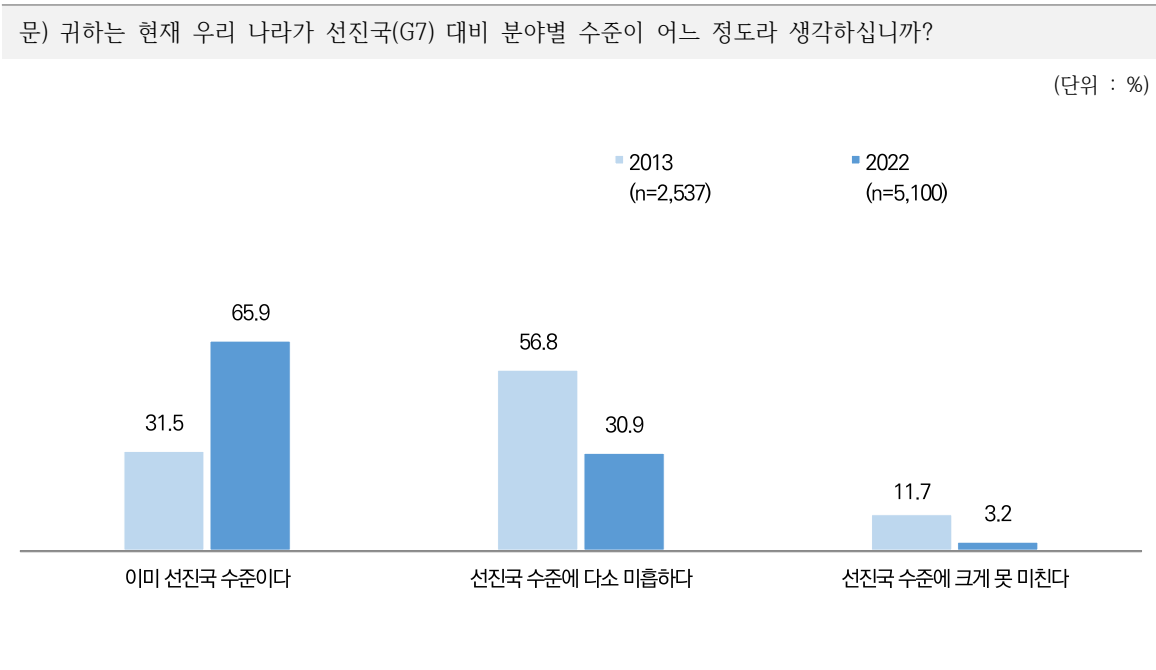


### 9)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문화분야

**선진국(G7) 대비 문화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 '선진국(G7) 대비 문화분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의 응답 비율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30.9%),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3.2%) 순으로 이어짐. 65.9%라는 긍정 평가는, 보기로 제시된 6개의 분야(문화, 경제, 법치, 정치, 복지, 교육) 중 가장 호평을 받은 것임
-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근 10년 사이에 문화분야에 대해 선진국 수준이라고 응답한 국민들의 비율이 크게 상승함(34.4%p 증가)

〈그림 2-58〉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문화분야





## 10)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경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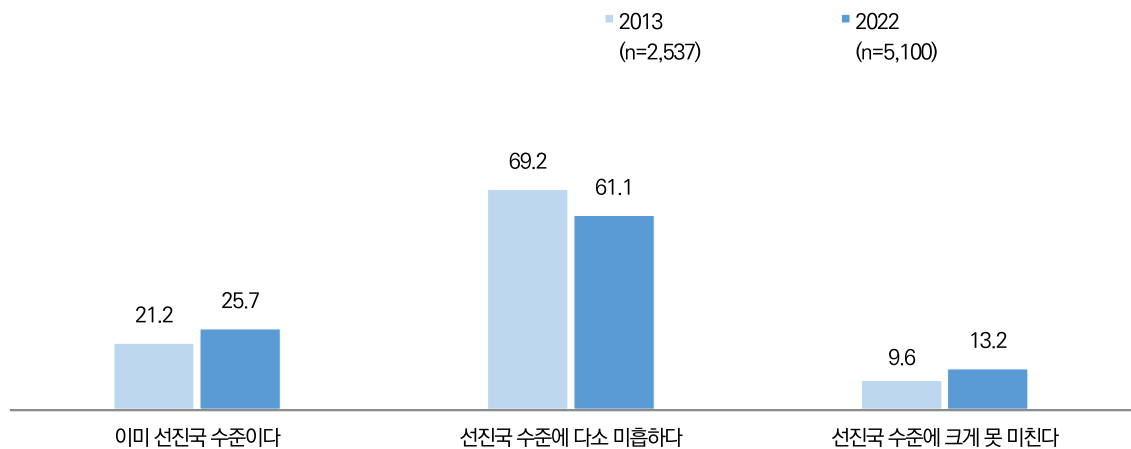
선진국(G7) 대비 경제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25.7%

- '선진국(G7) 대비 경제분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25.7%),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13.2%) 순으로 이어짐
-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의 비율이 8.1%p 감소하였지만,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각각 4.5%p, 3.6%p씩 상승함

〈그림 2-59〉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경제분야

문) 귀하는 현재 우리 나라가 선진국(G7) 대비 분야별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11)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법치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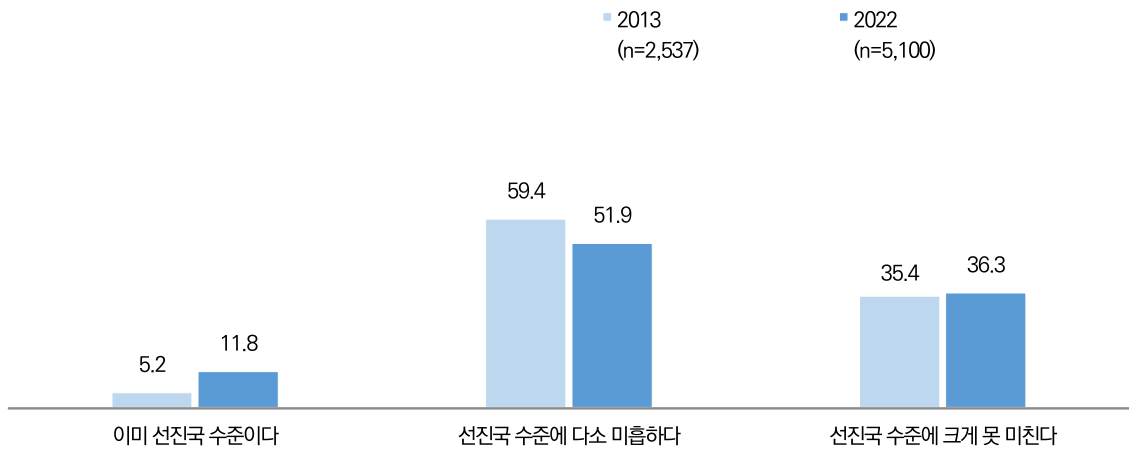
**선진국(G7) 대비 법치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11.8%**

- '선진국(G7) 대비 법치분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36.3%),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11.8%) 순으로 이어짐
-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법치분야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의 응답 비율이 6.6%p 상승하였음

〈그림 2-60〉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법치분야

문) 귀하는 현재 우리 나라가 선진국(G7) 대비 분야별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12)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정치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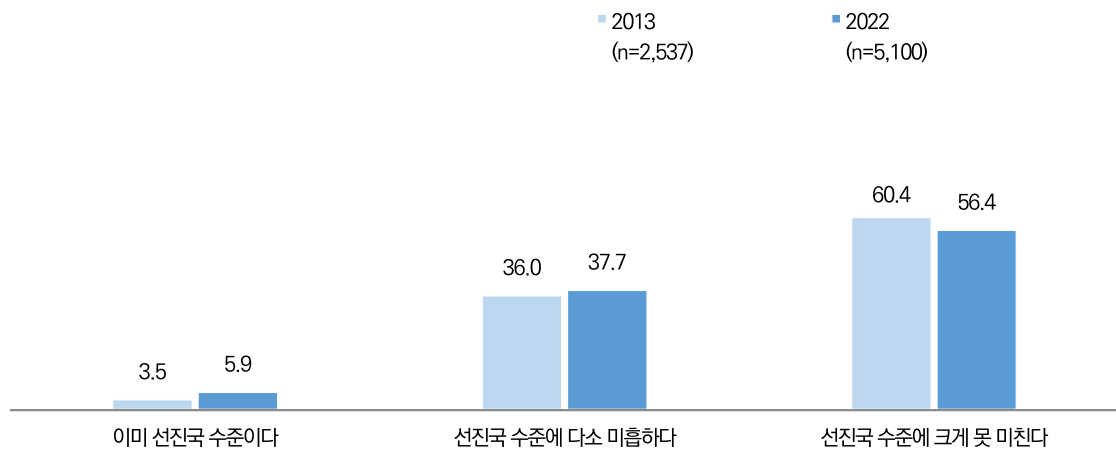
## 선진국(G7) 대비 정치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5.9%

- '선진국(G7) 대비 정치분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응답 비율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37.7%),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5.9%) 순으로 이어짐. 이러한 정치분야는, 보기로 제시된 6개의 분야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인색한 평가를 받은 것임
- 이는 10년 전인 2013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응답자의 94.1%가 정치분야는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임(전체 응답률 100.0% -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5.9%)

〈그림 2-61〉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정치분야

문) 귀하는 현재 우리 나라가 선진국(G7) 대비 분야별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13)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복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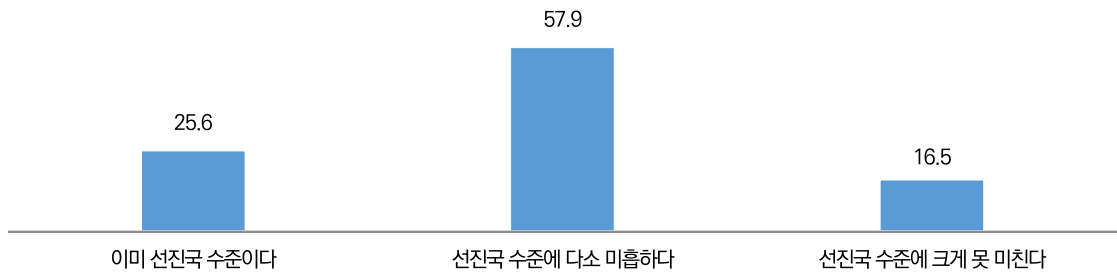
선진국(G7) 대비 복지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25.6%

- '선진국(G7) 대비 복지분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25.6%),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16.5%) 순으로 이어짐

〈그림 2-62〉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복지분야

문) 귀하는 현재 우리 나라가 선진국(G7) 대비 분야별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14)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교육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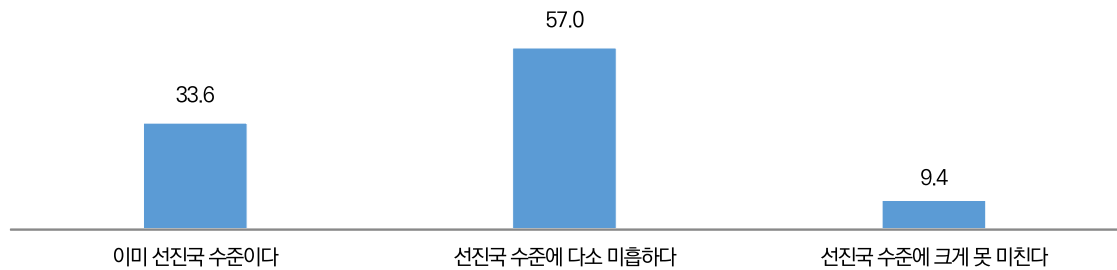
선진국(G7) 대비 교육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33.6%

- '선진국(G7) 대비 교육분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33.6%),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9.4%) 순으로 이어짐

〈그림 2-63〉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교육분야

문)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G7) 대비 분야별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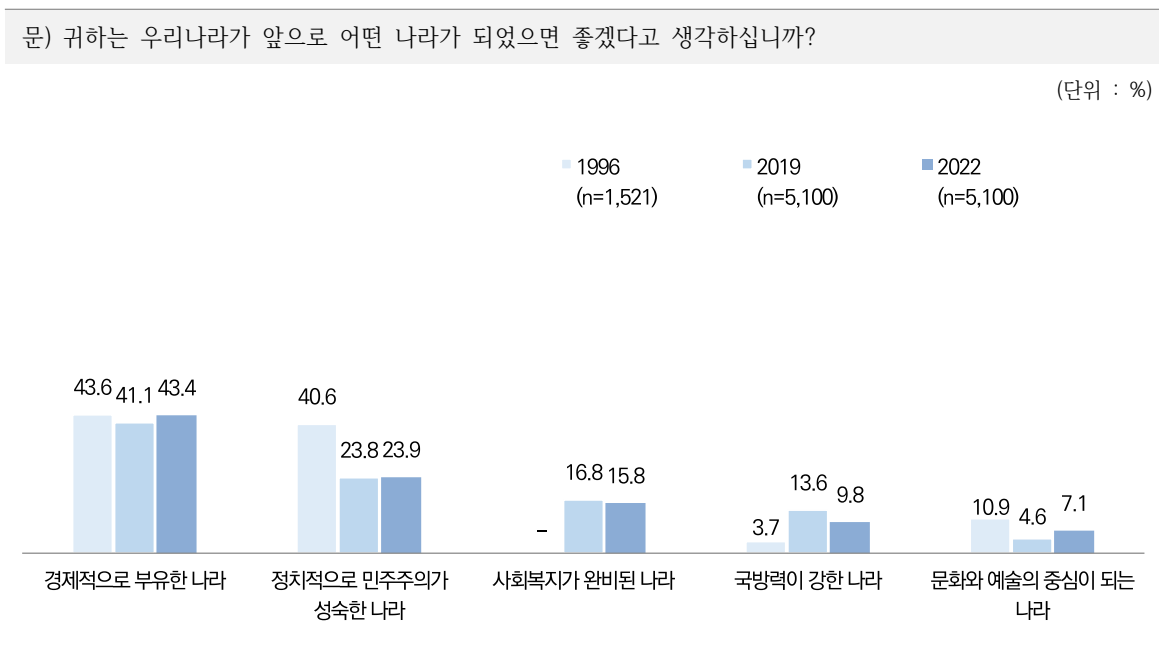


15)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sup>5)</sup>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면' 43.4%

-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43.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3.9%),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1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996년, 2019년에 조사 결과에 이어 2022년 조사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점이 눈에 띈

〈그림 2-64〉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5) 2019년 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의 경우 응답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9년에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함에 따라 응답이 분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8. 북한/통일

### 1)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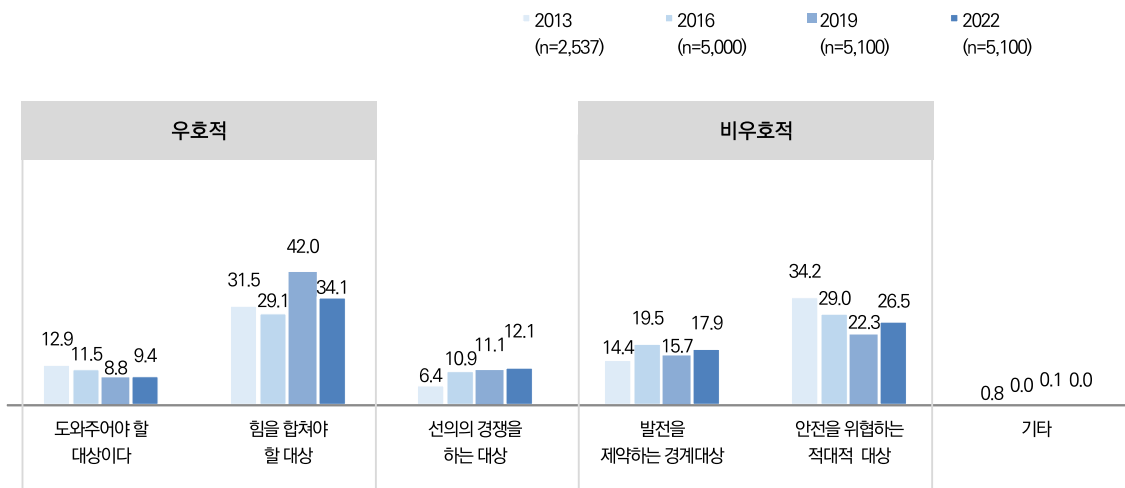
북한에 대해 우호적 43.5% vs. 비우호적 44.4%, 비우호적 입장 감소세 '반등'

-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다'(34.1%)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다'(26.5%), '우리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계 대상이다'(1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응답을 묶어보면, '우호적' 응답은 43.5%(지원대상 9.4% + 협력대상 34.1%), '비우호적' 응답은 44.4%(경계대상 17.9% + 적대적 대상 26.5%)임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우호적' 응답은 2013년 44.4%, 2016년 40.6%, 2019년 50.8%, 2022년 43.5%로 나타나면서 등락이 반복된 모습임. 반면, '비우호적' 응답은 2013년 48.6%, 2016년 48.5%, 2019년 38.0%로 점차 낮아지다가 2022년 44.4%로 다소 반등함

〈그림 2-65〉 북한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2) 통일 시기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53.3%, '가급적 빨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1%

- '통일 시기'를 살펴본 결과,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음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6%로 직전년도 대비 8.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도 28.0%에서 2022년도 10.1%로 낮아져 근 15년 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그림 3-66〉 통일 시기

문) 귀하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